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2020. 8. 25. (화) 14:00

서울시의회의원회관 별관 2층 제2대회의실

프로그램

축사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좌장

여 명 서울시의원

발제

윤철경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 소장

토론

오오쿠사 미노루 K2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배영길 꿈터가정형대안학교 대표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유승규 당사자 청년 토론자

임성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주관

여 명 서울시의원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준비모임



목 차

목차	3
----	---

발제

1.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정립’	5
윤철경 G’L학교박청소년연구소 소장	
서보람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	

토론

1. ‘한국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어려움과 관점’	55
오오쿠사 미노루 K2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2. ‘대상자 특성, 범주 및 지원원칙’	61
김혜원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3.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의 부모가 원하는 지원방향’	67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4. ‘꿈터학교 사례로 본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과 지원방향’	73
배영길 꿈터가정형대안학교 대표	
5. ‘당사자 시점에서 본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방식’	83
유승규 당사자 청년 토론자	
6.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 비교와 청년거버넌스 협력방안’	89
임성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	

조례안

1.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103
2. 서울특별시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준비모임 조례안	109

발 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정립

윤철경 G'L학교박청소년연구소 소장
서보람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정립

윤철경(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서보람(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

1. 은둔형 외톨이는 누구인가?

현재 상태로 방치하였을 때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때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목적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정신의학계, 상담학계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왔다. 은둔형 외톨이를 정신병리적, 심리적 문제로 진단하는 한 그 문제는 개인과 부모의 부담으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은둔형 외톨이 논의를 시작한 지 근 20년이 됐지만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은둔형 외톨이란 ‘친구 없이(혹은 하나) 3개월 이상 집 밖 출입을 하지 않는 경우(여인중, 2005)’ 또는 ‘사회적 소속감이 없고 소통과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문제를 혼자서, 또는 가족 안에서만 고민하다 결국 대부분 집에서만 지내게 되고 가족 이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되는 경우(오오쿠사 미노루)’로 정의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¹⁾를 번역한 용어이다.

은둔형 외톨이 인 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모세종, 2020)²⁾.

① 은둔 상태

1.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2.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경우
3.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4. 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5. 은둔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② 기간

위 ①항의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거나 그러한 적이 있던 사람

위 ① 은둔 상태의 세부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②에 해당하는 경우만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6개월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에는(심지어는 가족과도)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

1) 가족 이외의 대인관계가 없고 사회에 참여도 하지 않는 상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외출을 하는 사람이라도 가족 이외 친밀한 대인관계가 없는 상태라면 은둔형 외톨이에 포함됨(사이토 타마키, 2017: 박애선, 2018: 23에서 재인용)

2) 광주광역시 의회에 보낸 소견서.

람'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다. 은둔 시작 시기도 중요하다. 성인으로 이행되기 전에 은둔경험이 있는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중장년, 또는 노인 시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 청년기에 시작된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장애, 좌절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고립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한 은둔 경험은 그 이후의 생애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언제까지 계속될 지 예측할 수 없고 방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다가도 언제 방 안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사람들로 사회 복귀 이후에도 사회생활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은둔형 외톨이의 기본적 속성은 이전에 유지해 오던 '가족 이외 사회관계'를 철회하고 '집(방)'에서 나가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경험이 성인기 이전에 발생해서 이후 지속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지칭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사 개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NEET'(Not in Education and Employment and Training)이다. 무업청소년(또는 무업청년)으로 번역 할 수 있다.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청년 층을 찾아내어 이들에게 교육, 직업훈련 기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EET에는 다양한 집단이 포함된다. 먼저 구직 NEET(능동적 NEET)는 일할 의욕이 있는 집단으로 장, 단기 실업자이다.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 비구직 NEET 내부는 좀 더 복잡하다. ① 가족부양의 책임이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이나 교육환경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청소년·청년, ② 적절한 취업이나 훈련 기회를 찾으며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청년, ③ 예술, 음악, 자기주도학습 등 다른 활동에 매진하는 '자발적 무업청소년·청년' ④ 현실에 낙담하여 위험하고 비사회적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탈자'등. 은둔형 외톨이는 위④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NEET는 주로 고용노동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유사용어로 가장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회적 고립자(인)'이다. 윤철경은 '외톨이'라는 용어가 당사자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어감이 강해 외부로 부서의 단절을 의미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회적 고립인'을 시범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용어에 이미 다양한 고립 계층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고립인'을 '은둔형 외톨이'를 특징하는 용어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혼선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³⁾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나 일반 대중들은 '사회적 고립 청년'을 은둔형 외톨이로 생각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 청년청, , '생명의 전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계에서는 '고립 청년'을 '비구직 NEET' 유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⁴⁾ 정보부족, 생계문제, 건강문제, 관계부적응 등 문제를 가진 NEET로 구직 NEET에 비해 고립감,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NEET로 정의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 사

3) 독거 노인, 사회 관계가 없는 1인 가구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함. 한준(2019)은 '가족 및 가족 외 사람과 접촉과 교류가 없는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사회적 고립'으로 정의하고 그 결과 '고립감' 및 '심리적 웰빙' 등 심리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한 준은 사회적 접촉과 지원으로 부서의 고립이 심리적 결과를 낳은 것으로 정의하여 사회적 고립은 관계로, 결과는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생명의 전화에서는 '고립 청년'을 '관계부적응 청년' 뿐 아니라 '진로정보부족 청년', '생계노동청년',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청년'을 고립감 등 '에너지 수준'에 따라 분류하며 유형화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는 고립청년의 일부로서 다루고 있음(2019).

4)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사회적 고립인'을 '은둔형 외톨이'로 이해하고 응답하였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았음.

업은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고립 상태를 보이지만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이 모두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기 때문이다.

2. 은둔형 외톨이에 초점을 둔 지원은 왜 필요한가?

1) 은둔형 외톨이의 규모

일본내각부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2010)는 (1)전국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모집단으로 하여 (2) 표본수 5,000명을 (3) 2단계 층화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이루어졌다.

「Q20 평소 어느 정도 외출합니까?」에 대해서 다음 5~8에 해당하는 자

- 5. 취미활동을 할 때만 외출한다
- 6. 근처 편의점 등에는 외출한다
- 7.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8.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Q22 현재 상태가 된 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자

은둔형 외톨이란 6개월 이상 은둔상태이면서 6,7,8번 응답자는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 5번 응답자는 ‘준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하고 5,6,7,8번 응답자를 합쳐 광의의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이중에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임신, 출산, 육아, 가사를 이유로 집에 머무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에서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일본조사와 동일하게 전국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모집단으로 하였고 다단계 층화표집법을 사용하여 무작위 추출한 가구단위 조사를 기반으로 청년 2,7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 15~18세 용 설문지에는 은둔형 외톨이 비율을 볼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연령의 은둔형 외톨이 비율은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조사결과 원데이터를 다시 분석하여 평소 외출 정도를 기준으로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을 산출하였다(표 2-1 참조). 평소 외출 상태의 지속기간에서 6개월 미만 사례(18명)를 제외하고(일본의 기준과 동일) 전체 사례수 2,303명에 대한 비율을 나타냈다.

<표 2-1> 평소 외출 상태별 지속 기간

* N=2,303(단위: 명(%))

구분	a+b+c+d	(a)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 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b)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c)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d)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x^2
전 체	80(3.47)	23(1.00)	55(2.39)	1(0.04)	1(0.04)	—
6개월 이상~1년 미만	17(0.74)	5(0.22)	11(0.48)	1(0.04)	—	10.304
1년 이상~3년 미만	35(1.52)	9(0.39)	25(1.09)	—	1(0.04)	
3년 이상~5년 미만	17(0.74)	8(0.35)	9(0.39)	—	—	
5년 이상~7년 미만	7(0.30)	1(0.04)	6(0.26)	—	—	
7년 이상	4(0.17)	—	4(0.17)	—	—	

* $p<.05$, ** $p<.01$, *** $p<.001$

<표 2-2> 성별 및 연령별 평소 외출 상태의 계기

* 단위: 명(%)

구 분		전체	a+b+c+d+e	(a)취업 이 잘되 지 않아 서	(b)인간관 계가 잘되지 않아서	(c)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d)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e)기 타	x^2
전 체		2,303 (100)	80 (3.47)	13 (0.56)	6 (0.26)	4 (0.17)	55 (2.39)	2 (0.09)	—
성 별	남성	1,202 (100)	11 (0.92)	7 (0.59)	1 (0.08)	2 (0.17)	—	1 (0.08)	33.083 ***
	여성	1,101 (100)	69 (6.27)	6 (0.54)	5 (0.45)	2 (0.18)	55 (5.01)	1 (0.09)	
연 령	19-29세	1,140 (100)	26 (2.28)	6 (0.52)	3 (0.26)	1 (0.09)	14 (1.23)	2 (0.18)	7.443
	30-39세	1,134 (100)	54 (4.76)	7 (0.62)	3 (0.26)	3 (0.26)	41 (3.62)	—	

* $p<.05$, ** $p<.01$, *** $p<.001$

장애나 임신·출산이 계기가 사회적 고립은 은둔형 외톨이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표 2-2>에서 c, d 를 제거하고 <표 2-3 >을 작성하였다.

<표 2-3> 성별 및 연령별 평소 외출 상태의 계기

* 단위: 명(%)

구분	전체	a+b+e	(a)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b)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e)기타
전체	2,303(100)	21(0.91)	13(0.56)	6(0.26)	2(0.09)
성별					
남성	1,202(100)	9(0.75)	7(0.59)	1(0.08)	1(0.08)
여성	1,101(100)	12(1.08)	6(0.54)	5(0.45)	1(0.09)
연령					
19-29세	1,140(100)	11(0.96)	6(0.52)	3(0.26)	2(0.18)
30-39세	1,134(100)	10(0.88)	7(0.62)	3(0.26)	-

* $p<.05$, ** $p<.01$, *** $p<.001$

19~29세 연령에서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은 0.91%이며 남성이 0.75%, 여성이 1.08%이며 19~29세에서 0.9%, 30~39세에서 0.88% 발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은둔 계기는 인간관계 보다는 취업문제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으나 성별 차이가 있어 여성은 인간관계 문제로 은둔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2-3>의 비율을 2017년 해당 인구 집단에 적용하여 19~39세 중 은둔형 외톨이 규모를 추정하였다. <표 2-4>에 의하면 19~39세 중 광의적 의미의 은둔형 외톨이는 13만 5천명이다. 이 숫자에는 은둔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사나 육아, 신체·정신적 질병 등의 은둔 계기도 배제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숫자로 산출된 것이다⁵⁾.

<표 2-4 > 19~39세 인구 중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과 인구수(추정치)

단위: 명(%)

구분	전국			서울	
	해당 구간 인구	은둔형 외톨이 비율	추정치 (해당인구수 x 비율)	해당 구간 인구	추정치 (해당인구수 x 비율)
전체	14,903,919	21(0.91)	135,625	3,175,220	28,894
성별					
남성	7,731,262	9(0.75)	57,984	1,587,168	11,904
여성	7,172,657	12(1.08)	77,464	1,588,052	17,151
연령					
19-29세	7,438,631	11(0.96)	71,410	1,568,353	15,056
30-39세	7,465,288	10(0.88)	65,694	1,606,867	14,140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17년 6월 기준) 활용, 추정치는 비율 상 오차로 인해 성별, 연령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은둔형 외톨이는 무업자 중 소극적이며 사회적으로 좌절된 비취업희망형 인구집단이다. 참고로 무업청소년 규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는 2016년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토대로 해당 연령 인구와 무업청소년 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OECD 에 따르면 무업청소년은 학생, 비학생 중 취업자를 제외한 인구로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통학 인

5) 여인중은 은둔형 외톨이 기준을 3개월 이상 은둔한 자로 제시하고 있다.

구 등이 다 포함되는데 한국 상황에서는 이 인구를 포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청소년정책 분야에서는 육아 및 가사 인구를 포함, 여러 가지 이유로 쉬고 있는 인구를 무업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고용정책 분야에서는 육아 및 가사는 무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분야(김기현의 기준)으로 15~29세 무업청소년을 산출한 결과는 해당 인구 집단의 13.0%로 123만명 (2016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비구직 NEET는 87만9천명(71.5%, 해당 인구집단의 9.3%)이다(표 6 참조). 정책대상 규모로 볼 때, 은둔형 외톨이는 무업청소년의 1/13이 채 되지 않으며 비구직 NEET로 한정해도 1/10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발굴과 개입이 어렵고 성과를 이뤄내기 까지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집단이다.

<표 2-5> 2016년 경제활동 인구조사⁶⁾에 따른 연령별 무업청소년 규모

[단위: 천 명(%)]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15~19세	20~24세	25~29세	
학 생 (휴학생 포함)			2,670 (88.8)	1,625 (52.8)	430 (12.9)	
비학생	취 업 자		96 (3.2)	977 (31.8)	2,151 (64.3)	
	실업자 및 비경제활 동 인구	정규교육기관 통학 (1)	65 (2.2)	1 (0.0)	0.1 (0.0)	
		입시학원 통학 (2)	46 (1.5)	10 (0.3)	— (0.0)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 (3)	12 (0.4)	52 (1.7)	63 (1.9)	
		육아 및 가사 (4)	3 (0.1)	60 (1.9)	205 (6.1)	
		쉬었음, 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5)	36 (1.2)	122 (4.0)	118 (3.5)	
		그 외 (6)	78 (2.6)	230 (7.5)	378 (11.3)	
		연령구간별 인구 수(계)		3,006 (100.0)	3,077 (100.0)	3,345 (100.0)
무 업 청 소 년	OECD 기준 (1+2+3+4+5+6)		240 (8.0)	475 (15.4)	764 (22.8)	1,479 (15.7)
	김기현(2016: 4)의 기준 (4+5+6)		117 (3.9)	412 (13.4)	701 (21.0)	1,230 (13.0)
	김종욱(2017: 98)의 기준 (5+6 중 배우자가 없는 청소년)		114 (3.8)	347 (11.3)	472 (14.1)	933 (9.9)

출처: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윤철경 외(2017), 학교밖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표 편집

<표 2-6> 2016년 비구직 무업청소년의 규모

연 도	15~19세				20~24세				25~29세			
	해당 인구	무업청소년			해당 인구	무업청소년			해당 인구	무업청소년		
		전체	구직	비구직		전체	구직	비구직		전체	구직	비구직
16	3,006	116	17	99	3,077	412	118	294	3,345	700	214	486

출처: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7년 7월 25일 인출, 윤철경 외(2017), 학교밖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6)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지난 1주간의 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냄.

2) 현재까지의 지원정책 사례

(1) 청년정책분야

청년정책은 그동안 주로 청년일자리 정책과 고용지원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2018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청년미취업자의 고용과 직업훈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어왔다. 이런 가운데

주로 고용에 초점을 둔 청년정책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왔으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서두르며 청년들의 니즈에 기초한 정책영역의 확대를 실천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국가차원에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20년 8월5일부터 시행이 된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과에서 ‘청년기본법’을 관장하며 국가차원의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기본계획’에는 고용지원 뿐 아니라 청년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청년정책을 선도해 온 서울시는 청년청이라는 독립적인 행정조직을 갖고 있으며 2015년 1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을 위한 장기전략으로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했다. 서울시 청년보장은 졸업유예, 무업청소년(NEET), 불안정 근로자 등 제도 밖으로 밀려난 약 50만 명의 사회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자리(활동지원), 일자리(청년뉴딜일자리), 살자리(청년 1인가구 주거지원, 희망두배통장), 놀자리(청년활력공간)와 같은 안전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종합적인 정책의 틀을 갖추고 있었다(서울시, 2015: 18, 21; 윤철경 외, 2017에서 재인용).

서울시 청년정책은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청년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고립 청년, 또는 은둔형 외톨이 등으로 사업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청년재단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2) 사회복지분야

은둔형 외톨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 자활사업, 또는 사례관리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망에 들어온 대상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3년간 ‘희망플랜’사업을 실시하였다. 중앙 1개소, 지역 11개 사회복지관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빈곤청소년·청년 발달지원을 통해 빈곤 대물림 차단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역 내 빈곤 청소년·청년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고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 부모 코칭 등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NEET 청년 감소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아동·청소년 역량강화, 지역사회 참여 및 역량강화와 더불어 임시방편적인 취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연결, 이를 위해 개인·가족·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사회복지계의 ‘희망플랜’ 사업은 기본적으로 4~24세 빈곤 청소년·청년 대상(중위 소득 50%이하) 사업으로 NEET 예방 사업이었다.

전국의 사회복지관 11개가 참여했던 이 사업은 2019년 이후 사업 명칭과 재원을 다양화하며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생명의 전화 ‘고립청년 밀착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청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2020년에도 추진되고 있다.

(3) 청소년정책분야

청소년정책 분야에서는 2000년 중반에 구축된 CYS-Net과 동반자,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 등이 은둔형 외톨이 등 고위험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들어와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담공무원과 사례관리자를 두고 지역단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CYS-Net 활용한 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면 CYS-Net, 지역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전문기관 및 소속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사회기반 인프라와 연계하여 진로상담 및 자립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다음은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2022)에 나타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관련 내용이다.

□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청소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상담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 ('17년) 224개 지자체 설치운영 중 → ('22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19~24세) 사회진출 지원 (여성가족부)

○ 지역별 CYS-Net 활용, 취약·위기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 강구

* 무업(NEET) 및 은둔형 취약계층 발굴, 지역 사회안전망 연계 강화

○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맞는 전문 진로상담 및 진로설계 코칭 강화

* 진로 관련 심리검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3) 은둔형 외톨이 사업의 虛와 實

은둔형 외톨이는 매우 개입하기 어려운 대상이며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은둔형 외톨이’는 실태조사도, 발굴과 프로그램 개입도 매우 어렵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성과를 내기까지는 장기간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우 세심하고 정교하게 준비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 없이 뛰어 들어서 성공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기숙형 대안학교 ‘꿈터’, 기숙형 서비스 ‘K2’ 등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민간기관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적극적 발굴 대상은 아니지만 은둔형 외톨이 사례가 발굴 될 때 청소년 동반자 등을 통해 사례관리를 하곤 했다.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 자조모임, 정서지원 서비스를 한 기관도 있다.

공적 지원 없이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에만 의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당사자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험을 축적해 온 기관들이 있다.

최근 청년정책분야, 청소년정책 분야, 사회복지분야에서 일단의 재정 지원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 당사자, 당사자 부모들이 그동안 지원의 필요를 꾸준히 요청해 왔음에도 여전히 지원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그 이유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이 어렵고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서비스 능력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지원 사례를 종합하면 은둔형 외톨이는 NEET의 일부, 고립 청년의 일부,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일부로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왔다. 정부나 지자체, 민간재단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은둔형 외톨이’ 대상에만 주목하며 공모사업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이러한 사업비 지원이 일정 부분 해당 대상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 못하다면 은둔형 외톨이 대한 발굴, 접근조차 어려워 사업 수행이 원래 목적대로 수행되기 어렵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대상에 대한 이해, 축적된 전문성, 전문 인력에 의한 세심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량을 갖춘 전달체계도 필요하다. 따라서 공모사업 형식의 산발적 지원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정책담당자, 사업담당자 들은 발굴도 어렵고 사업성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집단보다는 유사 용어를 사용하며 사업적용 ‘대상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 정책성과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부모, 정책 당국자, 관련 기관 들은 혼선을 빚고 있다.

전국에 13만 5천명으로 추정되는 19~39세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 이는 NEET의 1/13, 비구직 NEET의 1/10 정도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실태 파악도, 발굴도, 지원도 어렵지만 이 사회 외진 곳에서 소리 없는 목소리로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게으른 것도 아니고 중증 정신질환자도 아니다. 이들은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워 누가 손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돕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살아나가기 힘든 생존 조건 속에 놓이게 된다.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조례, 실태조사, 특화된 사업과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이들은 어느 사업에서도 악세사리가 될 뿐 필연적으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지금 그 현실을 여기저기에서 목도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며 사회관계가 축소되면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은 더 증가할 것이다. 당장의 정책 성과가 느리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3. 은둔형 외톨이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1) 현황⁷⁾

은둔형 외톨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남신경정신과 내원자(2002-2010)자에 대한 분석이 있다. 당시 내원 연령 평균 22세, 은둔기간 평균 45개월(3년9개월)로 나타났다. 주요 증상으로 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며 방 청소, 위생관리를 하지 않고 쓰레기 더미 속에 노숙자처

7) 조사에 참여해주신 ‘은둔형외톨이’ 당사자, 짧은 시간에 어려운 조사를 담당해주신 ‘(가칭)한국은둔형 외톨이지원연대’ 관계자, 어려운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해주신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관계자, 조사 참여 부모님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 부분의 집필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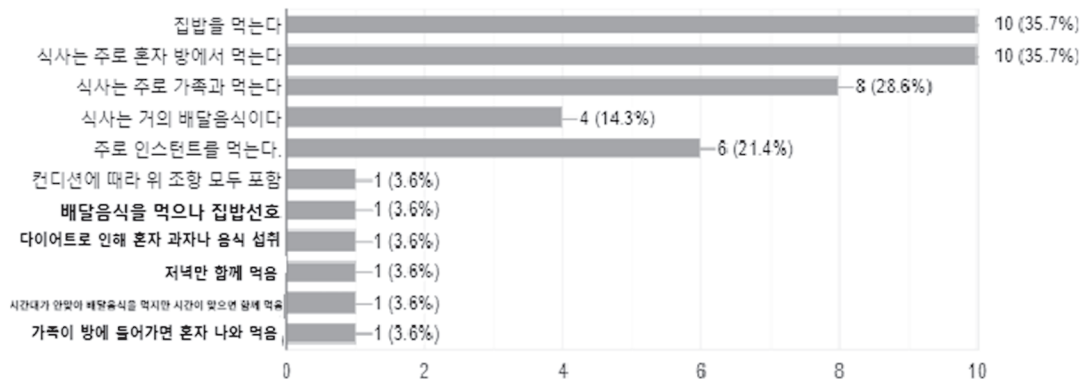
럼 생활하는 것, 인스턴트 식품 섭취와 운동부족으로 비만상태에 빠지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등 불규칙한 식생활이 보고되었다. 생활시간에 있어서도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며 이에 대한 간섭에 대해 공격적 행동이 돌출되었다. 이들은 대인불안, 대인공포, 무력감,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피해적인 사고, 공격성, 자살사고,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적 특성을 보인다(이영식 등, 2011: 여인중, 15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례분석은 한국은둔형외톨이 부모협회가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 협회가 2020년 8월 4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사를 주로 방에서 혼자 먹는다’는 응답이 높다거나 ‘인스턴트와 배달음식’ 음식으로 떼우는 경향이 보인다(그림 3-1). 신체적으로는 저체중이나 과체중 경향을 보이고 정신건강상으로 ‘우울증’이나 ‘결벽증’을 보이고 있다(그림 3-2). 주로 하는 일은 ‘인터넷 게임과 컴퓨터’이며 그 다음은 ‘자는 일’이다(그림 3-3).

<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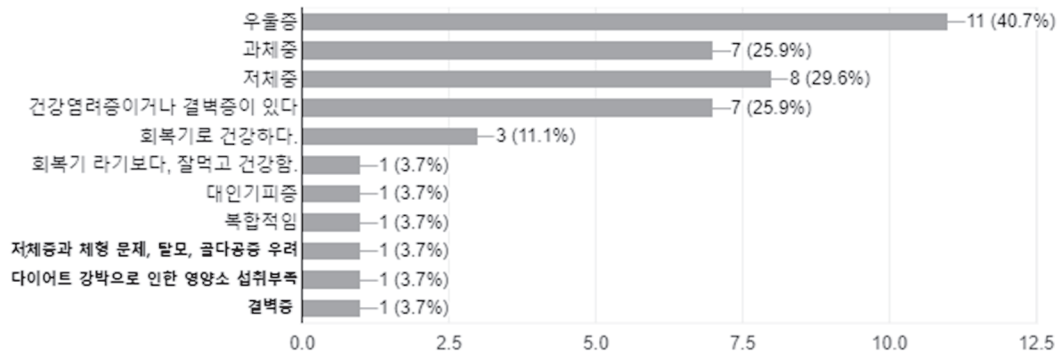
은둔자녀의 식생활

응답 27개



은둔자녀의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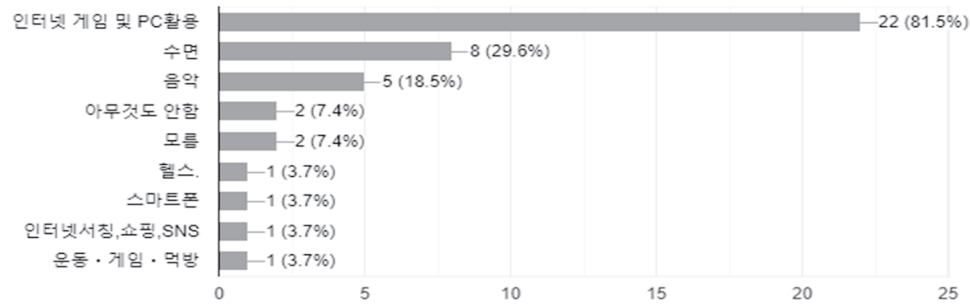
응답 27개



<그림 3-3>

은둔자녀의 주 활동

응답 2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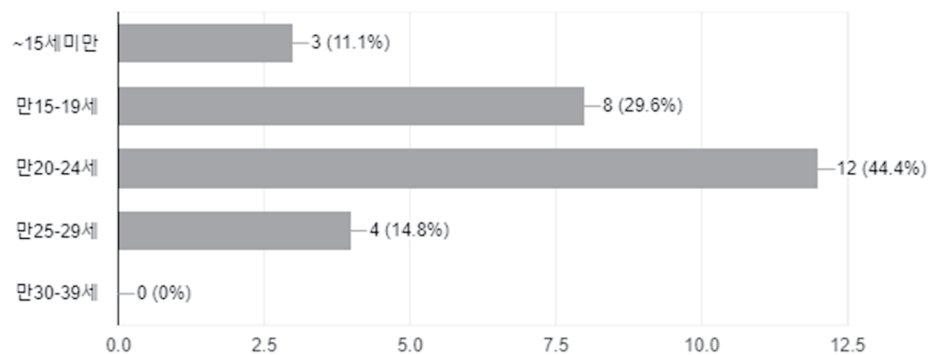


부모들이 보고하는 자녀의 처음 은둔 시작 시기로는 만20-24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만15~19세였다. 15세 미만 저연령층에서도 출현하였다. 다음 장에 보고할 기관 현황조사에서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은둔을 시작하는 주요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4>

자녀의 처음 은둔 시작시기

응답 27개



은둔형외톨이연대 준비모임에서는 당사자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2020.8.14.~ 8.20 까지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은둔형 외톨이 카페를 통해 구글폼 설문지를 보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가 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계속 조사 중인 상태이다. 현재 사례 수가 35명에 불과하지만 간단한 응답경향만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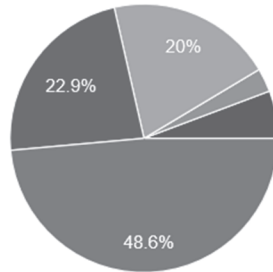
<그림 3-5>를 보면 응답자의 70% 정도는 취미활동, 편의점 정도는 가는 외출을 했으며 20% 이상은 심각한 수준의 은둔 형태를 보였다.

<그림 3-5>

● 은둔생활의 여부

1. 당신은 과거, 또는 현재에 6개월 이상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35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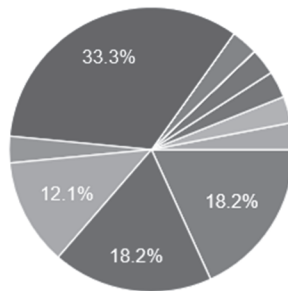
- ① 주로 집 안에서 지내지만 취미활동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한 적이 있다)
- ② 근처 편의점 등에는 외출한다(한 적이 있다)
- ③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않은 적이 있다)
- ④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않은 적이 있다)
- ⑤ 위 4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외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던...

<그림 3-6>

● 은둔하게 된 계기

2. 그렇게 생활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입니까(이었습니다)?

33 responses



- ① 학업중단이나 진학 실패로
- ②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 ③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 ④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서
- 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 ⑥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⑦ 원래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⑧ 군 입대 날짜를 기다리다가

▲ 1/2 ▼

<그림 3-6>에 의하면 주요 은둔계기는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학업중단/진학실패, 취업상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6개월 이상 은둔하고 있거나 은둔경험이 있는 자⁸⁾로 제한하였고 은둔 계기가 임신/출산, 장애, 군입대, 코로나 등의 사유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은둔형 외톨이를 엄격하게 정의하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20.8.17. 현재 총 35명 중 은둔 경험, 1명은 은둔 사유에서 배제되어 유효 응답자는 총 32명이다.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는 어떤 용어가 자신들을 가장 잘 표현하느냐를 물었을 때 ‘사회적 고립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은둔형 외톨이’, ‘저활력인’ 순으로 응답하였다. 발상의

8) 5. 취미활동을 할 때만 외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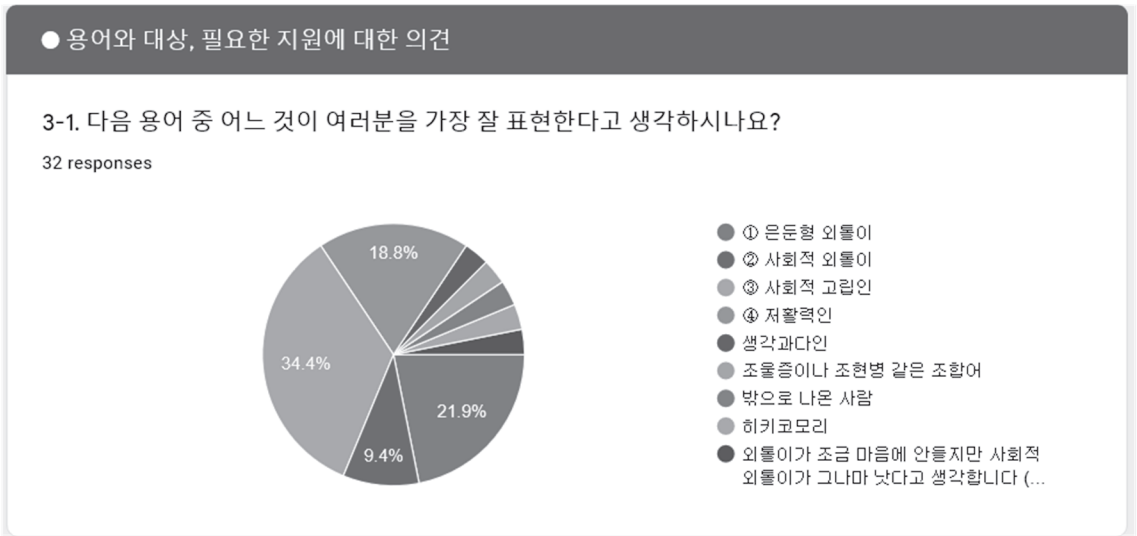
6. 근처 편의점 등에는 외출한다

7.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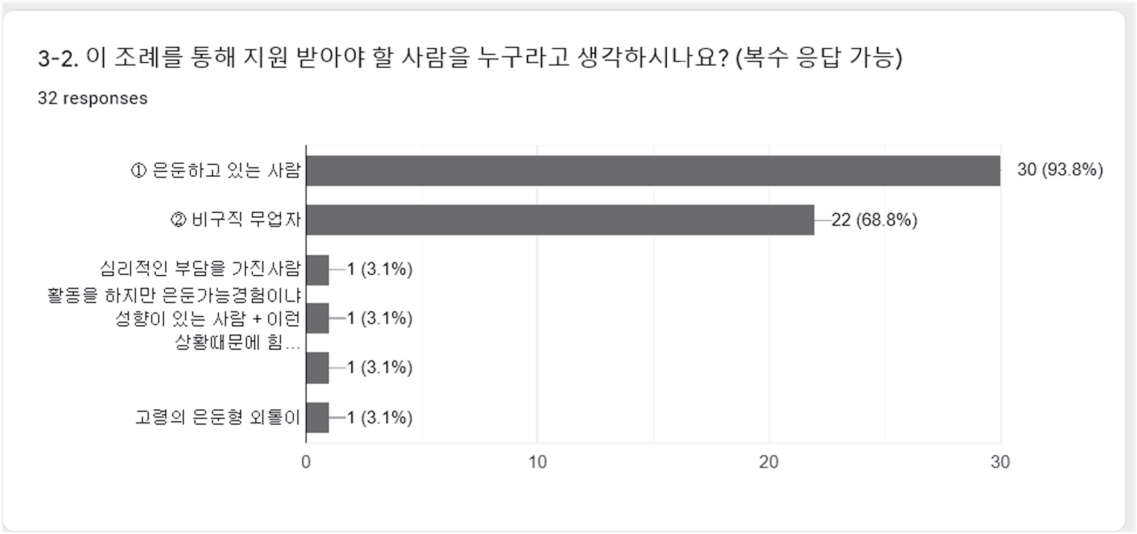
8.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전환을 주는 용어는 ‘밖으로 나온 사람’이었다. 방에 틀어박힌 사람이 아니라 사회 밖으로 나온 사람으로 자신을 지칭하고 있었다. 조례제정에 사용할 용어에 대한 검토는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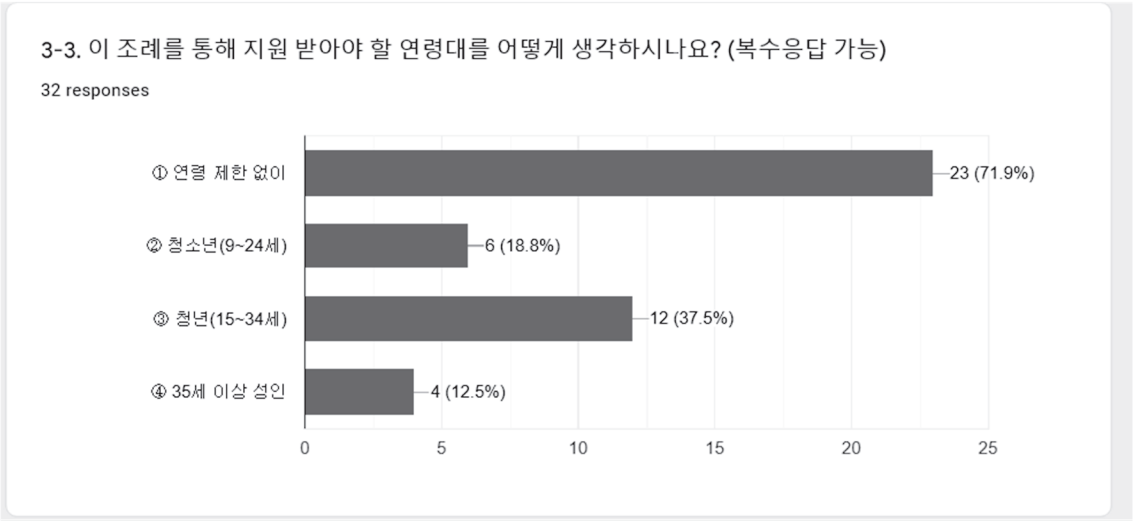


<3-7>에 의하면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받아야 할 대상으로는 93.8%의 응답자가 ‘은둔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3.8%는 비구직 무업자까지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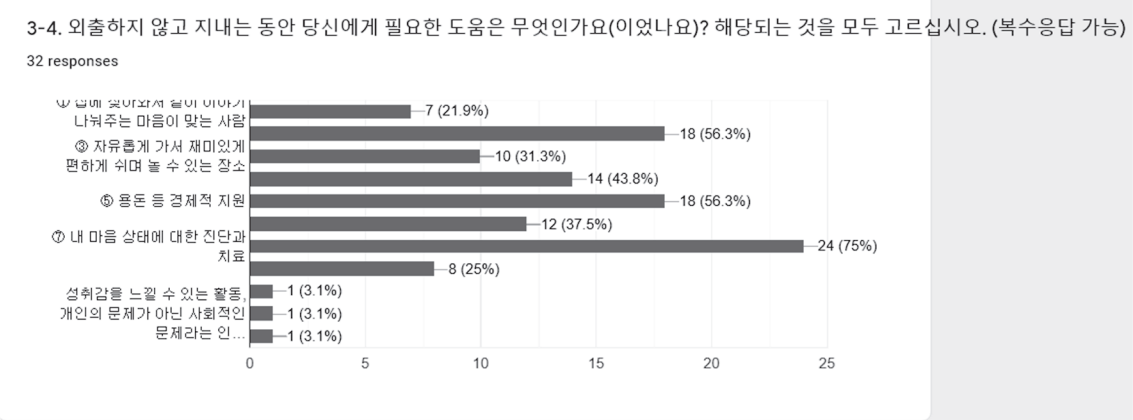


<그림 3-8>에 의하면 연령제한 없는 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15~34세’ 연령대로 한정된 응답도 37% 수준으로 ‘15~34세’에 집중하되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8>



<그림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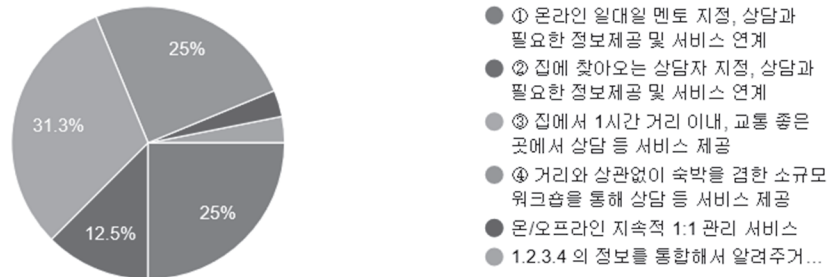
당사자가 외출하지 않고 지내는 동안 필요로 했던 도움은 75%의 응답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진단과 치료’(75%)을 꼽았으며 그 다음은 ‘이런 상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식과 정보’(56.3%)’, ‘용돈 등 경제적 지원(56.3%)’ 이었다(그림 3-9 참조).

도움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집에서 1시간 이내 교통 좋은 곳에 있는 상담센터’(31%), ‘온라인 일대일 멘토 지정과 상담,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25%), ‘거리와 상관 없이 숙박을 겸한 소규모 워크숍 방식의 상담 서비스’(25%)였다. 예측과 다르게 당사자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올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림 3-10>

3-5.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면 가장 도움을 받기 쉬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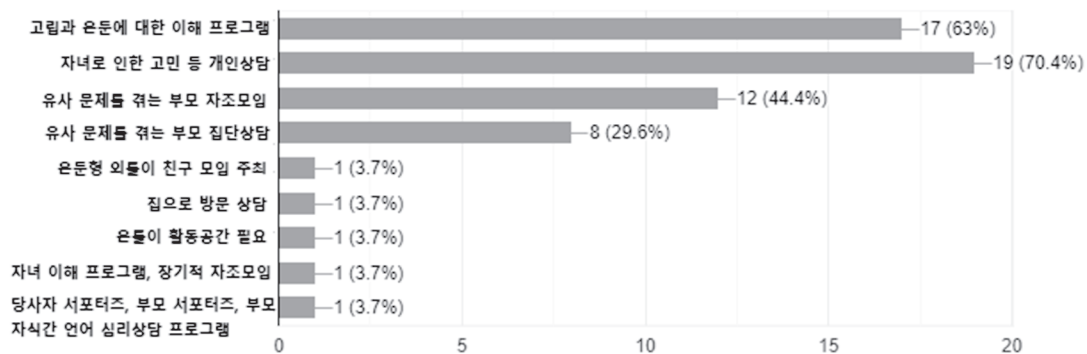
32 responses



<그림 3-11>

부모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응답 27개



은둔 자녀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역할과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들도 자녀문제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한다. 부모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것은 ‘자녀로 인한 고민 등 개인상담’(70.4%)이다. 그리고 ‘고립과 은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63%)이다. ‘유사문제를 겪는 부모 자조모임(44.4%)’, ‘집단상담(29.6%)’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준비모임에서 실시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응답을 구조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먼저, 당사자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된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 어려움 앞에서 무너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힘겨운 싸움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이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회적지지 속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집단에 대한 경고는 복지사업으로 끝내는 어른들의 돈 잔치가 아니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지원의 방향은 ‘자립, 스스로 서기’와 ‘함께 생활하기’이다. ‘자립과 함께’를 같이 이

루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가 된 원인을 고려하여 상담만이 아니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원은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초기에는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며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개선(신뢰감 형성)이 필요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 자립단계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은둔형외톨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료심리상담 등 심리적인 지원 뿐 아니라 친구를 사귄 수 있는 프로그램, 청년여가공간, 일자리 등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기력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존재이다. 당사자들은 사회로 나가려 할 때 또 사회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또 다른 폭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기도 하며 은둔 상태로 오래 있는 나이트 외톨이들은 나이 때문에 더 찌질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관계 맺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초점을 둔 정책을 원하며 이것이 성공한 후에 다른 정책 대상에게 지원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은둔형외톨이를 이해하는 전문가단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행정부서, 법, 지원체계가 갖추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응답

1.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 : 은둔형 외톨이가 된 원인

- 누구나 은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둔하는 이들은 불쌍하거나 동정 받을 사람도 아니고, 비난받을 사람은 더욱이 아닙니다. 충격으로 잠시 무너져 내린 것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이 또한 인생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의 강도에 따라 은둔을 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둔하고 싶어서 은둔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은데**,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겐 은둔을 택하는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 혹은 패배자라고 인식되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시선은 이미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의 등을 떠미는 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내 어린 날에는 초라했지만 젊을 때도 초라하게 살기 싫어요
- 은둔형 외톨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선택할 수 있다면 모든 선택지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가 은둔형 외톨이로 겪었던 무기력은 아주 오랜 시간 사회와 가족의 폭력과 방치를 겪다가 나 자신조차 나를 포기하고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없고 아무것도 못해서 불안했습니다. 세수하고 밥을 먹고 하는 반복되는 일상들이 허무했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폭식, 게임, 인터넷 중독으로 뇌를 마비시키고 과수면으로 도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한심하게 보는 히키코모리의 모습들은 사실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단 결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를 한심하다고 느끼는게 눈빛과 말과 행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가족에게서조차 고립감을 느끼니 세상에서는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단지 1~2년이 아닌 학창시절부터 10년 이상 오랜시간동안 박탈감과 고립감 자괴감 불안감 등을 느꼈습니다.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목적: 인간으로서 가치 발견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제적 생산성을 위해서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여러 수익관계가 얹혀있는 복지사업의 수단으로만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서로가 알지 못했던 개개

인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주고, 믿어주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또 베풀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함이길 바랍니다. 진심이 아니면 바로 알아챌 것입니다.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3. 지원방향과 개입방법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

-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립심을 길러주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인에 따라 다른 도움이 필요

- 은둔형 외톨이가 단순히 사회에 고립되어 있다기보다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이 심리적인 거면 상담도 좋겠지만, 외면적인 것이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면서 외면적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 은둔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 지원의 필요

- 초기에는 떠먹여주다시피 할 정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 같다
- 당사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조차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가족 등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개선(신뢰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되 이 과정에서는 부모와의 지나친 정서적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등의 지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립청년(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사회적 기대와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의 감정이 고립의 큰 요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들에게 ①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태(심리적) ②부채감 없는 지원(금전적)이 있을 때 사회로의 복귀가 준비될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③고용센터등과의 연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이 주어진다면 고립당사자가 추가적 지원 없이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복귀**를 유지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마지막 단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이나 일자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설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일자리

- 은둔형외톨이는 벗어나고자 하더라도 보호자와 본인 모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담기관이나 병원에서도 위치가 애매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일 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주세요.

- 그 원인이 심리적인 거면 상담도 좋겠지만, 외면적인 것이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면서 외면적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무료심리상담

- 무료 심리상담 등도 찾아오는 심리상담 등을 구축하여 더욱 편안한 장소에서 부담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무기력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의 존재

- 현재는 청년체인지업(비자립청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담과 소모임에 참여하며 조금씩 사회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한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진심으로 지지받는다고 느꼈을 때부터 마음이 아주 조금씩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여전히 성별이나 나이, 무기력하게 흘러보냈던 시간들 때문에 무시 받고 다시 무기력 구멍에 빠지긴 하지만 적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시 무기력 구멍에서 나갈 용기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청년여가시설의 필요

- 현재는 일을 해서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지만 취업준비 중에는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여가라도 할 수 있게 청년을 위한 도서관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노인과 어린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5. 또 다른 필요

사회인식 전환의 필요: 사회적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

- 집밖으로 나가는 건 성공했지만 여전히 취업과정에서 사회에서 받는 폭력들이 무섭습니다. 집 밖에 나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쓸 수 있는 말이 없고 면접 과정에서도 낙인, 차별, 혐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다 너무 늦어 버린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전까진 계속 이 쳇바퀴를 돌고 돌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이나 일자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 든 은둔형 외톨이가 겪는 어려움과 구조 요청

- 나이가 어린 은둔형 외톨이는 어리기 때문에 도움받기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기도, 온라인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이 든 은둔형 외톨이들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회에 자리를 못 잡았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자신을 숨기고 집 안에서 썩어가기만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벗어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도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고,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더 힘듭니다. 온라인에서조차 나이를 밝히면 나이가 많은데 덜 되먹은 인간이라고 인간관계를 만들 수 없으니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 하고 가면만 쓰게 됩니다. 어린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썩어 들어가 있는 나이 든 은둔형 외톨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개입의 필요

-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로 다시 나갈 때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생 초기에 지원과 지지가 주어진다면 보다 빠른 사회복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6. 정책

정책대상은 집중하여 성공사례 만든 후 확대

- 이를 악용하는 머리들도 물론 생기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상은 좁게 잡고 다양한 임상과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대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히키코모리 선진국인 일본을 두고 건강한 복지가 끊어지지 않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단체와 행정부서, 법과 지원체계 필요

- 최소한 은둔형외톨이문제에 대해 이해를 하고 전문가분들이 모인 단체나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둔형외톨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법과 지원체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 원인 및 사회적 배경⁹⁾

은둔형 외톨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 기질 요인으로 볼 때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욕구가 크고 타인의 피드백에 매우 예민한 성격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사론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기질적 요인 외에 가정, 학교,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 등 사회적 요인들이 작동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 가정환경적 요인으로는 핵가족화와 자녀수 감소로 과잉보호, 과잉통제, 모자밀착 등 부적절한 양육태도의 결과 의존적, 미성숙, 이기적이고 자생력을 갖지 못한 유약한 아동·청소년이 양산되고 있으며 학업경쟁과 같은 발달과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쉽게 좌절하여 은둔자가 될 가능성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부적응 요인으로는 왕따 등 학교폭력의 피해, 극심한 학업경쟁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이 존중되고 배려되지 않는 집단주의적 학교생활과 학습과정이 요즘의 청소년들에게는 건디기 매우 힘든 일과일 수 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행위는 학습성취에 맡겨져 있고 부모들은 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생활양식에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은 그 스트레스를 외부로 발산하거나 내부로 숨어들어 갈 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아이들과 수준이 안 맞는다든가,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든가 다양한 이유를 대지만 입시경쟁에서 탈락의 위기를 느끼거나 학교교육 자체에 흥미를 못 꺼서, 학교에서의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방으로 숨어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셋째, 청년실업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취업빙하기'라

9) 여인중(2018),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누구인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2018.11.27.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 더불어민주당, pp.16-17.

는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청년세대의 취업이 어려워져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접근하였다.

넷째, 문화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핵가족화와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거시설의 독립성(독립된 방), 인터넷문화(게임, 만화, 영화 등), 인스턴트 식품의 상용화가 경제적 도움만 있으면 홀로 살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전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방에서의 은둔적 삶이 새로운 형태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방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연령단계에 맞는 발달과업들을 성취하며 성장하고 있는가?’가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3) 필요한 도움

은둔형 외톨이는 질병으로 접근하기 보다 현재의 상태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뒤얽혀 있고 벗어나고 싶으나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기다리거나 못 본 척 하고 놔두기, 간섭과 과잉 반응 등은 은둔 생활을 조장하고 연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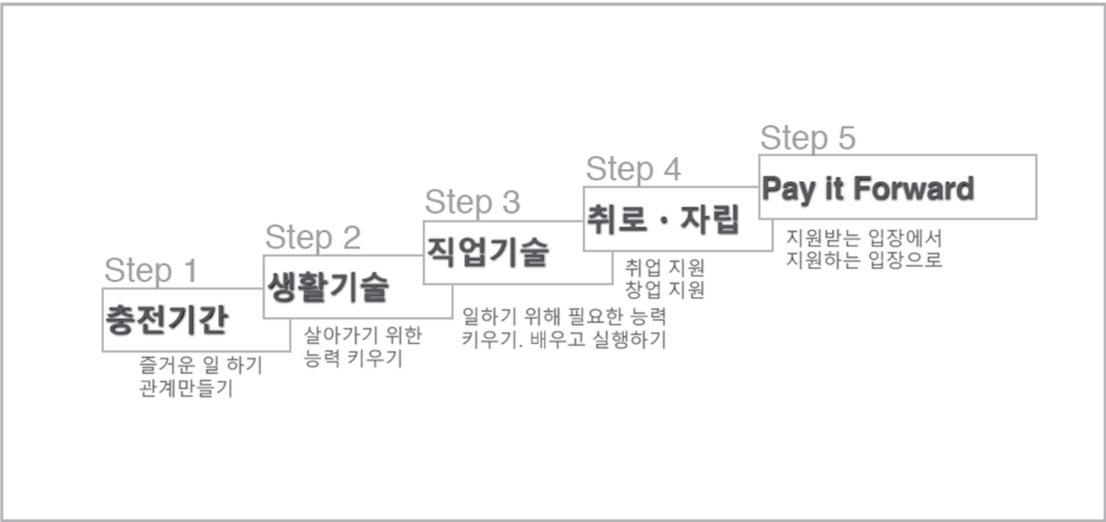
집에 머물며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의 단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필요한 도움은 단계별로 다르며 단계별로 세심하게 계획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세종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단계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관계를 끊고 집에 머물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수 탄다. 너무 길어지지 않고 자력으로 탈출하기를 바라며 기다리지만 점점 깊은 심연에 빠져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며 부모들은 애가 타지만 미래를 알 수 없다. 이들이 집 밖을 나선다는 것, 무엇을 찾아 나선다는 것, 도움을 받기 위해 나선다는 그 첫 발은 정말로 위대한 발걸음이다. 어떤 제안도 물리치던 존재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색기가 위대한 출발점이며 모색할 수 있기까지 기나긴 기다림과 뜻뜻하게 잡아주고 용기를 내게 해주는 도움이 필요하다.

□ 모세종의 자립지원 4단계

- 1단계(침잠기): 집에만 있음
- 2단계(모색기): 집 밖으로 나갈 볼까 모색
- 3단계(활동기):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 시작
- 4단계(자립준비기): 학업, 취업, 직업훈련 등 자립 준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문적 지원기관인 K2는 <그림 3-12>와 같은 단계적 목표를 세우워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돕고 있다.

<그림 3-12> K2 인터내셔널의 자립지원 5단계



4. 현재 민간 지원기관 현황은 어떠하며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갖고 있는가?

본 연구소와 준비모임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6개 기관이 응답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기관현황

<표 4-1>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 설립 주체

N=16

구분	내용	개소	퍼센트
설립 주체	공공기관	시·군·구립	1
	비영리단체	재단법인	1
		사단법인	2
		법인 외 단체	5
		기타	1
	영리사업체	법인	5
		개인	1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운영방식은 설립주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11개소(73.3%)이며, 수탁 운영은 4개소(26.7%)이다.

<표 4-2>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 운영방식

N=15

구분	개소	퍼센트
설립주체 직접 운영	11	73.3
수탁 운영	4	26.7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 중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응답한 기관은 3개소이며 이중 인증 사회적 기업은 2개소, 예비 사회적 기업은 1개소이다.

<표 4-3 >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 중 사회적 경제조직

N=3		
구분	개소	퍼센트
인증 사회적 기업	2	66.7
예비 사회적 기업	1	33.3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 설립연도는 ‘2011~2015년’에 설립된 기관이 5개소(33.3%)로 가장 많고, ‘2016~2020년’ 4개소(26.7%), ‘2001~2005년’과 ‘2006~2010년’이 각각 2개소(13.3%), ‘1985~1990년’과 ‘1996~2000’년이 각각 1개소(6.7%)이다. 최근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관련 기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4>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설립 연도

N=15		
구분	개소	퍼센트
1985~1990년	1	6.7
1996~2000년	1	6.7
2001~2005년	2	13.3
2006~2010년	2	13.3
2011~2015년	5	33.3
2016~2020년	4	26.7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시설면적은 21~50m²는 3개소(21.4%), 51~100m²는 2개소(14.3%)이며 ‘101~500m²’는 6개소(42.8%)이며 ‘501m² 이상’은 3개소(21.4%)이다. ‘50m² 이하’로 공간이 협소한 기관은 3개소(21.4%)이다.

<표 4- 5>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시설 면적

N=14		
구분	개소	퍼센트
21~50m ²	3	21.4
51~100m ²	2	14.3
101~200m ²	3	21.4
201~300m ²	2	14.3
301~500m ²	1	7.1
501~1000m ²	1	7.1
1001m ² 이상	2	14.3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은 임차가 15개소(93.8%)로 대부분이었으며, 자가는 1개소(6.2%)이다.

<표 4- 6>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공간 소유 여부

N=16

구분	개소	퍼센트
자가	1	6.2
임차	15	93.8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2020년 예산은 '15억 이상'이 4개소(28.6%)로 가장 많았으나, '1억 미만' 책정된 기관도 4개소(28.6%)이다. '1억 이상 2억 미만'과 '3억 이상 5억 미만'인 기관은 각각 2개소(14.3%)이다.

<표 4- 7>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2020년 예산

연도	예산	개소	퍼센트
2020년 (14개소)	5,000만원 미만	2	14.3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2	14.3
	1억 이상 2억 미만	2	14.3
	3억 이상 5억 미만	2	14.3
	5억 이상 10억 미만	1	7.1
	10억 이상 15억 미만	1	7.1
	15억 이상	4	28.6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외 기타 기관과 1개 이상 관계하고 있는 기관은 12개소(75%)이며, 한 곳도 관계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4개소(25%)이다. 예산규모도 작고 다른 기관과 연계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한 기관이 1/4 이나 되었다.

<표 4- 8> 관계하고 있는 기관 유무

N=16

구분	개소	퍼센트
있음	12	75.0
없음	4	25.0

정부와 관계하고 있는 기관은 6개소(36.5%)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하고 있는 기관은 12개소(75%), 이 외 기타 기관과 관계하고 있는 기관은 7개소(43.7%)이다. 해당 기관들이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9> 주로 관계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유무

		N=16	
구분		개소	퍼센트
정부	있음	6	37.5
	없음	10	62.5
지방자치단체	있음	12	75.0
	없음	4	25.0
기타	있음	7	43.7
	없음	9	56.3

정부 관계부처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2개소(28.6%)이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각각 1개소(14.3%)였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 구청과 연계하고 있는 기관이 8개소(47.1%)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7개소(41.1%), 경기도 남양주시청과 강원도청과 연계하고 있는 기관은 각각 1개소(5.9%)이다. 기타 기관으로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각각 2개소(18.2%),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청년네트워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각각 1개소(9.1%)이다.

<표 4-10>, <표 4- 11>을 통해 볼 때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이 관계하고 있는 공공기관 수는 총 35개소로, 정부 기관은 7개소(20.0%), 지방자치단체 17개소(48.6%), 기타 기관은 11개소(31.4%)이다. 중앙부처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더 많으며 서울시와 구청, 서울시 관련기관들이 더 많이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10> 주로 관계하고 있는 공공기관

구분	기관	개소	퍼센트
정부	고용노동부	2	28.6
	여성가족부	2	28.6
	행정안전부	1	14.3
	보건복지부	1	14.3
	환경부	1	14.3
	합계	7	100
지방 자치 단체	서울시	7	41.1
	서울시 구청	8	47.1
	경기도 남양주시청	1	5.9
	강원도청	1	5.9
	합계	17	100
기타	서울시교육청	2	18.2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1	9.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1	9.1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	18.2
	서울청년네트워크	1	9.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9.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9.1
	신용보증기금	1	9.1
	구로문화재단	1	9.1
	합계	11	100

<표 4- 11> 주로 관계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비율

N=35

구분	개소	퍼센트
정부	7	20.0
지방자치단체	17	48.6
기타	11	31.4
계	35	100.0

2)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서비스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6개 기관 중 9개 기관

이었다. 은둔형 외톨이수는 2020년 현원이 ‘1~5명’, ‘6~10명’이 각각 3개소(33.3%)이며, ‘11~15명’이 2개소(22.3%), ‘16~20명’이 1개소(11.1%)이다. 2019년 은둔형 외톨이수는 ‘1~5명’, ‘6~10명’, ‘11명 이상’이 각각 3개소(33.3%)이다. 기관별로 10명 이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70% 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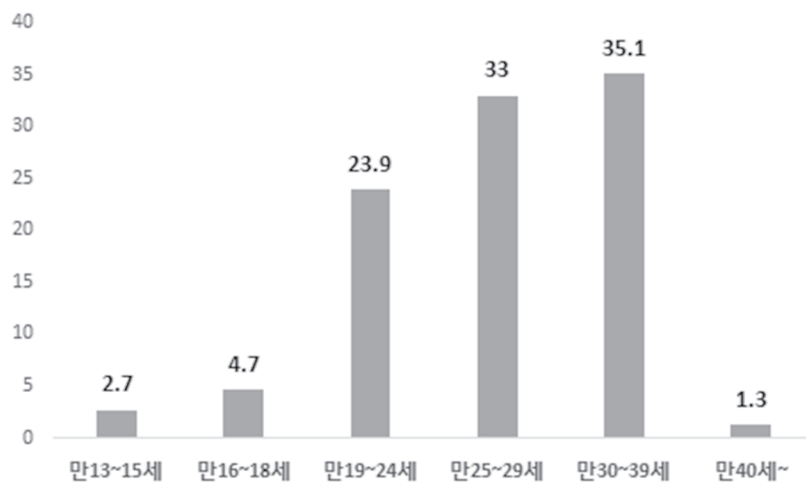
<표 4- 12> 기관별 은둔형 외톨이 수

N=9			
구분	고립인 수	개소	퍼센트
2020년 현원 (2020. 7. 15 기준)	1~5명	3	33.3
	6~10명	3	33.3
	11~15명	2	22.3
	16~20명	1	11.1
2019년 사회적 고립인수	1~5명	3	33.3
	6~10명	3	33.3
	11명 이상	3	33.3

기관별 은둔형 외톨이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만30~39세’가 104명(35.1%)으로 가장 많고, ‘만25~29세’ 98명(33%), ‘만19~24세’ 69명(23.9%), ‘만16~18세’ 14명(4.7%), ‘만13~15세’ 8명(2.7%), ‘만40세 이상’ 4명(1.3%)이다. 은둔형 외톨이이 20대 전반부터 40세에 이르도록 많이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13> 기관별 은둔형 외톨이 연령(2019년 기준)

* 단위: 명(%)							
기관 (9개소)	만13~15세	만16~18세	만19~24세	만25~29세	만30~39세	만40세~	합계
B	5	5	—	—	—	—	10
C	—	—	2	12	5	—	19
F	—	3	19	34	27	4	87
G	—	3	—	—	—	—	3
I	—	—	—	—	1	—	1
K	—	—	10	—	—	—	10
N	—	1	1	—	—	—	2
O	—	—	35	51	71	—	157
P	3	2	2	1	—	—	8
합계	8(2.7)	14(4.7)	69(23.9)	98(33.0)	104(35.1)	4(1.3)	29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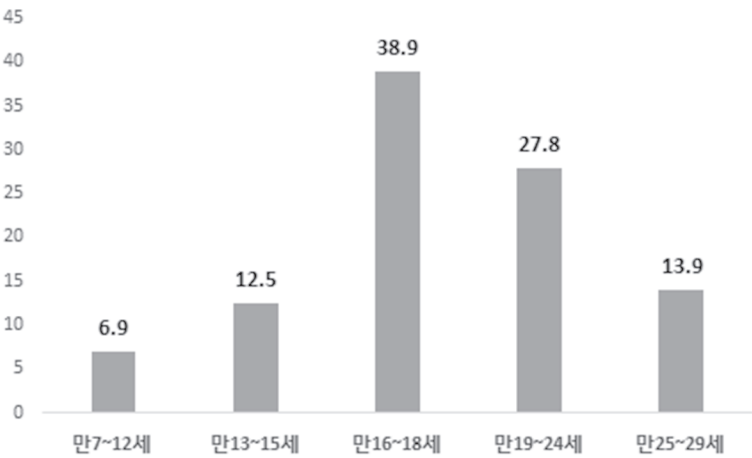
[그림 4-1] 기관별 은둔형 외톨이 연령(2019년 기준)

사회적 고립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만16~18세’가 28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19~24세’ 20명(27.8%), ‘만 25~29세’ 10명(13.9%), ‘만13~15세’ 9명(12.5%), 만 7~12세 5명(6.9%) 순이다.

<표 4- 14> 사회적 고립 처음 시작 시기(2019년 기준)

* 단위: 명(%)

기관 (6개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만19~24세	만25~29세	합계
B	3	5	2	—	—	10
C	—	—	3	10	6	19
F	1	—	10	10	3	24
I	—	—	—	—	1	1
K	—	—	10	—	—	10
P	1	4	3	—	—	8
합계	5(6.9)	9(12.5)	28(38.9)	20(27.8)	10(13.9)	7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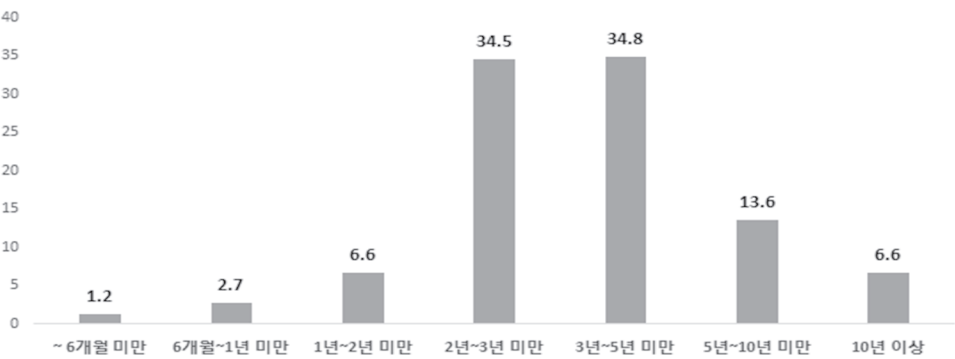


[그림 4-2] 사회적 고립 처음 시작 시기(2019년 기준)

은둔형 외톨이의 고립기간을 살펴보면, ‘3년~5년 미만’이 90명(34.8%)으로 가장 많고, ‘2년~3년 미만’ 89명(34.5%), ‘5년~10년 미만’ 35명(13.6%), ‘1년~2년 미만’과 ‘10년 이’이 각각 17명(6.6%), ‘6개월~1년 미만’ 7명(2.7%), ‘6개월 미만’ 3명(1.2%) 순이다.

<표 4- 15> 은둔형 외톨이의 고립기간(2019년 기준)

* 단위: 명(%)								
기관 (8개소)	~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
B	2	5	3	—	—	—	—	10
C	—	—	1	2	4	10	2	19
F	1	2	11	8	6	10	13	51
I	—	—	—	1	—	—	—	1
K	—	—	—	10	—	—	—	10
N	—	—	2	—	—	—	—	2
O	—	—	—	67	78	12	—	157
P	—	—	—	1	2	3	2	8
합계	3(1.2)	7(2.7)	17(6.6)	89(34.5)	90(34.8)	35(13.6)	17(6.6)	25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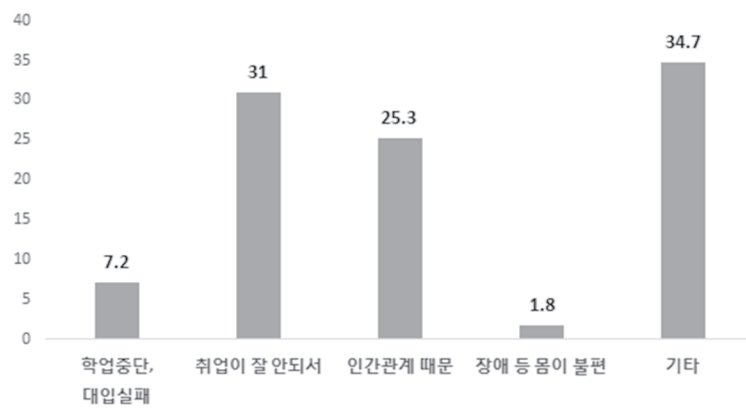
[그림 3] 은둔형 외톨이의 고립기간(2019년 기준)

사회적 고립을 하게 된 계기로는 ‘기타’가 96명(34.7%)으로 가장 많으며, ‘취업이 잘 안되서’ 86명(31%), ‘인간관계 때문’이 79명(25.3%), ‘학업중단, 대입 실패’가 20명(7.2%), ‘장애 등 몸이 불편해서’가 5명(1.8%)이다.

<표 4- 16> 사회적 고립을 하게 된 계기(2019년 기준)

* 단위: 명(%)

기관 (9개소)	학업중단, 대입실패	취업이 잘 안되서	인간관계 때문	장애 등 몸 이 불편	기타	합계
B	—	—	10	—	—	10
C	2	10	5	2	—	19
F	12	3	9	—	43	67
G	—	—	3	—	—	3
I	—	—	—	—	1	1
K	5	—	5	—	—	10
N	—	—	—	—	2	2
O	—	73	35	3	46	157
P	1	—	3	—	4	8
합계	20(7.2)	86(31.0)	70(25.3)	5(1.8)	96(34.7)	277(100)



[그림 4] 사회적 고립을 하게 된 계기(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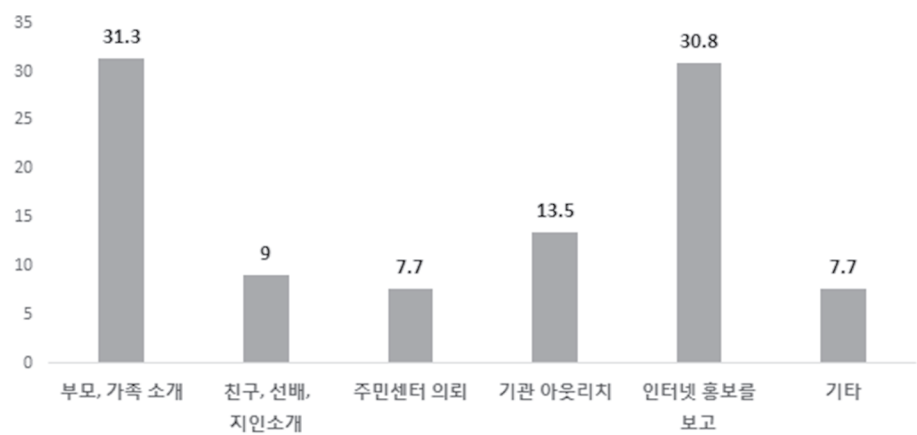
은둔형 외톨이 발굴 계기는 ‘부모, 가족 소개’가 98명(31.3%)으로 가장 많으며, ‘인터넷 홍보를 보고’가 96개소(30.8%), ‘기관 아웃리치’가 42개소(13.5%), ‘친구, 선배, 지인소개’가 28명(9%), ‘주민센터 의뢰’와 ‘기타’가 각각 24명(7.7%)이다.

<표 4- 17> 은둔형 외톨이 발굴 계기(2019년 기준)

* 단위: 명(%)

기관 (9개소)	부모, 가족 소개	친구, 선배, 지인소개	주민센터 의뢰	기관 아웃 리치	인터넷 홍보를 보고	기타**	합계
B	3	2	1	2	2	—	10
C	—	—	—	—	—	19	19
F	47	2	—	2	51	—	102
G	—	—	—	—	—	3	3
I	—	1	—	—	—	—	1
K	7	—	—	—	3	—	10
N	—	—	1	—	—	1	2
O	39	23	20	35	40	—	157
P	2	—	2	3	—	1	8
합계	98(31.3)	28(9.0)	24(7.7)	42(13.5)	96(30.8)	24(7.7)	312(100)

** 기타: 관련 민간 단체,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학교, 지자체 담당과에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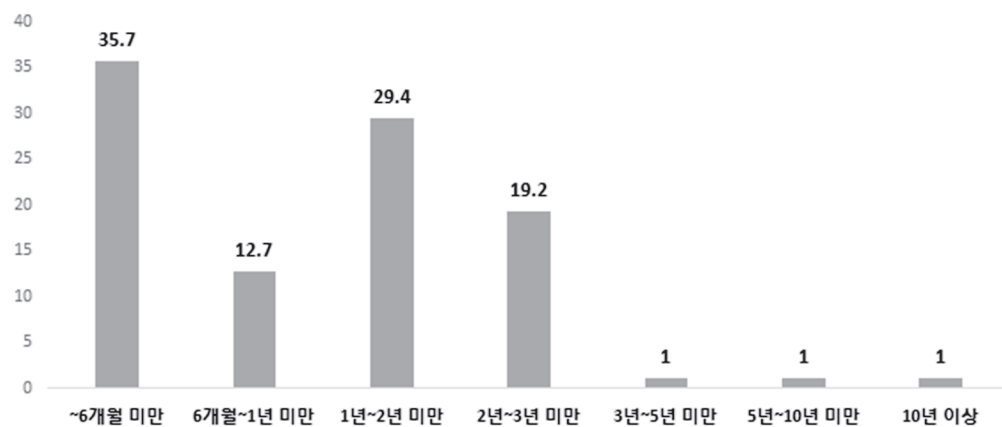
[그림 5] 은둔형 외톨이 발굴 계기(2019년 기준)

은둔형 외톨이의 서비스 유지기간은 ‘6개월 미만’이 110명(35.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년~2년 미만’ 91명(29.4%), ‘2년~3년 미만’ 59명(19.2%), ‘6개월~1년 미만’ 39명(12.7%),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이 각각 3명(1%)이다.

<표 4- 18> 은둔형 외톨이의 서비스 유지 기간(2019년 기준)

* 단위: 명(%)

기관 (9개소)	~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2년 미만	2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
B	—	—	3	7	—	—	—	10
C	19	—	—	—	—	—	—	19
F	91	3	8	1	—	—	—	103
G	—	—	—	3	—	—	—	3
I	—	1	—	—	—	—	—	1
K	—	5	—	—	—	—	—	5
N	—	—	1	—	1	—	—	2
O	—	30	79	48	—	—	—	157
P	—	—	—	—	2	3	3	8
합계	110(35.7)	39(12.7)	91(29.4)	59(19.2)	3(1.0)	3(1.0)	3(1.0)	308(100)



[그림 6] 은둔형 외톨이의 서비스 유지 기간(2019년 기준)

3) 은둔형 외톨이 부모 현황 및 서비스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모 현황에 응답한 기관은 총 4개이나 부모 현황에 응답한 기관은 3개소이다. 은둔형 외톨이 부모수는 2020년 7월 15일 기준 73명, 2019년 기준으로는 57명이다.

<표 4- 19> 은둔형 외톨이 부모 수

구분	기관수	명
2020년 부모수(2020. 7. 15 기준)	3	73
2019년 부모수(2019.1.1.~12.31)	2	57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 연령은 ‘50대’가 36명(57.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14명(22.2%), ‘60대’ 12명(19%), ‘70대 이상’ 1명(1.6%)이다

<표 4- 20> 은둔형 외톨이 부모 연령 현황

* 단위: 명(%)

기관 (3개소)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B	7	2	1	—	10
H	4	29	11	1	45
P	3	5	—	—	8
합계	14(22.2)	36(57.2)	12(19.0)	1(1.6)	63(100)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를 발굴한 계기는 ‘TV 등 언론기관 홍보’가 48명(43.6%)이며, ‘기타’ 28명(25.5%), ‘다른 이용자, 부모, 지인 소개’ 14명(12.7%), ‘인터넷 카페, 유튜브 등 홍보’ 13명(11.8%), ‘기관의 아웃리치’ 7명(6.4%) 순이다.

<표 4- 21> 은둔형 외톨이 부모를 발굴한 계기

* 단위: 명(%)

기관 (4개소)	TV등 언론 기관 홍보	인터넷 카페, 유 튜브 등 홍보	다른 이용자, 부 모, 지인 소개	기관의 아웃리치	기타	합계
B	2	—	3	2	3	10
F	30	13	4	—	—	47
H	16	—	4	—	25	45
P	—	—	3	5	—	8
합계	48(43.6)	13(11.8)	14(12.7)	7(6.4)	28(25.5)	110(100)

은둔형 외톨이 부모의 서비스 유지기간은 ‘6개월 미만’이 77명(72%)으로 가장 많으며, ‘1년~2년 미만’ 11명(10.3%), ‘2년~3년 미만’ 8명(7.4%), ‘6개월~1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이 각각 3명(2.8%), ‘10년 이상’ 2명(1.9%) 순이다.

<표 4- 22> 은둔형 외톨이 부모에 대한 서비스 유지기간

* 단위: 명(%)

기관 (4개소)	~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
B	—	—	3	7	—	—	—	10
F	35	3	8	1	—	—	—	47
H	42	—	—	—	—	—	—	42
P	—	—	—	—	3	3	2	8
합계	77(72.0)	3(2.8)	11(10.3)	8(7.4)	3(2.8)	3(2.8)	2(1.9)	107(100)

은둔형 외톨이 부모들이 원하는 서비스로는 ‘자녀 문제로 인한 고민 등 개인상담’이 5개소가 선택했으며,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해 등 교육프로그램’과 ‘유사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들과의 자조모임’이 각각 4개소, ‘기타’ 3개소, ‘유사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집단상담’이 2개소이다.

<표 4- 23> 은둔형 외톨이 부모들이 원하는 서비스

N=5

구 분	개소	퍼센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해 등 교육프로그램	4	80.0
자녀문제로 인한 고민 등 개인상담	5	100
유사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들과의 자조 모임	4	80.0
유사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집단상담	2	40.0
기 타	3	60.0

4)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계획

은둔형 외톨이 대상 지원 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 지원’ 중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7개소(43.8%)이며 향후 희망하고 있는 기관은 1개소(6.3%)이다. 그 다음으로 ‘내방상담’과 ‘집단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각각 6개소(37.5%)며 ‘재가상담’은 4개소(25%), ‘포레상담’은 2개소(18.8%)이다. ‘재가상담’의 경우 1년 이내 준비 중인 기관은 2개소(12.5%)이다.

‘교육 지원’으로는 ‘학습 등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기관은 7개소(43.8%), 준비 중인 기관은 1개소(6.3%), 희망하고 있는 기관은 2개소(12.5%)이다. ‘인문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기관은 5개소(31.3%), 준비 중인 기관은 1개소(6.3%)이다.

‘모임 및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놀이터 등 캠프 등 집단활동’을 제공 중인 기관은 7개소(43.8%)이며 ‘놀이터 등 오프라인 활동 공간 제공’, ‘취미활동 지원’이 각각 5개소(31.3%), ‘자조모임’ 4개소(25%), ‘온라인 동아리 활동 제공’ 2개소(12.5%)이다. ‘취미활동지원’은 2개소(12.5%)가 1년 이내에 준비 중에 있으며 ‘방 탈출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온라인 동아리 활동 제공’은 각각 1개소(6.3%)가 준비 중에 있다.

‘일 교육, 일 경험 제공 지원’으로는 ‘수준별 맞춤형 일 경험을 제공’하는 기관이 6개소

(37.5%)이며, 2개소(12.5%)는 준비 중에 있고, 2개소(12.5%)는 희망 중에 있다. ‘맞춤형 취창업 활동 지원을 제공’ 중인 기관은 3개소(18.8%)이며, ‘공동체 일터 제공을 통한 일 역량 키우기’, ‘직장 적응력을 위한 징검다리 일터 제공’, ‘일자리 개발’은 각각 2개소(12.5%)가 제공하고 있다.

‘주거생활 지원 사업’으로는 ‘일상생활 규칙 등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 3개소(18.8%), ‘숙박형 공동주거생활 지원’ 2개소(12.5%), ‘일대일 맞춤형 자활생활 주거 공간 제공’이 1개소(6.3%)이다. ‘온라인 공동생활 프로그램 지원’은 1개소(6.3%)가 준비 중에 있으며 1개소(6.3%)는 희망 중에 있다.

<표 4- 24> 은둔형 외톨이 대상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계획

* N=16(단위: 개소(%))

구분	내용	제공 중	준비 중 (1년 이내)	희망
상담	전화 상담	7(43.8)	—	1(6.3)
	개별 상담	4(25.0)	2(12.5)	3(18.8)
	내방 상담	6(37.5)	—	—
	집단 상담	6(37.6)	—	2(12.5)
	또래 상담	3(18.8)	—	4(25.0)
교육	학습 등 대안교육 프로그램	7(43.8)	1(6.3)	2(12.5)
	인문교양 교육 프로그램	5(31.3)	1(6.3)	—
모임 및 활동	놀이터 등 오프라인 활동 공간 제공	5(31.3)	—	3(18.8)
	취미활동 지원	5(31.3)	2(12.5)	1(6.3)
	캠프 등 집단 활동 제공	7(43.8)	—	2(12.5)
	방 탈출 온라인 서비스 제공	—	1(6.3)	2(12.5)
	온라인 동아리 활동 제공	2(12.5)	1(6.3)	3(18.8)
	자조모임	4(25.0)	—	1(6.3)
일 교육, 일 경험 제공	수준별 맞춤형 일 경험 제공	6(37.5)	2(12.5)	2(12.5)
	공동체 일터 제공을 통한 일 역량 키우기	2(12.5)	2(12.5)	2(12.5)
	직장 적응력을 위한 징검다리 일터 제공	2(12.5)	1(6.3)	1(6.3)
	맞춤형 취창업 활동 지원	3(18.8)	2(12.5)	2(12.5)
	일자리 개발	2(12.5)	3(18.8)	2(12.5)
주거생활 지원	일상생활 규칙 등 주거생활 지원	3(18.8)	—	2(12.5)
	온라인 공동생활 프로그램 지원	—	1(6.3)	1(6.3)
	숙박형 공동주거생활 지원	2(12.5)	—	1(6.3)
	일대일 맞춤형 자율생활 주거 공간 제공	1(6.3)	—	2(12.5)

은둔형 외톨이 부모 대상 지원 사업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담 지원’에는 ‘전화 상담’, ‘개별 상담’이 각각 7개소(43.7%)가 지원 중에 있으며, 1개소씩(6.3%)은 1년 이내 준비 중에 있다. ‘집단 상담’은 3개소(18.8%)가 제공 하고 있다.

‘교육 지원’으로는 ‘사회적 고립 이해 및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4개소(25%)이며, 2개소(12.5%)는 준비 중에 있고, 3개소(18.8%)는 희망하고 있다.

‘모임 및 활동 지원’으로는 ‘부모 자조모임’을 제공 중인 기관이 4개소(25%), ‘부모 캠프 등 집단 활동’은 3개소(18.8%)가 제공하고 있다.

<표 4- 25> 은둔형 외톨이 부모 대상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계획

* N=16(단위: 개소(%))

구분	내용	제공 중	준비 중 (1년 이내)	희망
상담	전화 상담	7(43.7)	1(6.3)	1(6.3)
	개별 상담	7(43.7)	1(6.3)	1(6.3)
	집단 상담	3(18.8)	2(12.5)	2(12.5)
교육	사회적 고립 이해 및 부모 교육	4(25.0)	2(12.5)	3(18.8)
모임 및 활동	부모 자조모임	4(25.0)	2(12.5)	2(12.5)
	부모 캠프 등 집단 활동	3(18.8)	2(12.5)	2(12.5)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간접 지원 사업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력양성 지원’ 중 ‘포레 상담 인력 모집 및 양성’, ‘재가방문 상담 인력 모집 및 양성’, ‘서비스 지원 인력 모집 및 양성’, ‘부모상담/자조활동 지원 인력 모집 및 양성’ 모두 각각 1개소(6.3%)씩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하고 있는 기관 또한 5~6개소이다.

‘연구 프로그램 개발지원’ 중 ‘당사자 대상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을 제공 중인 기관은 6개소(36.5%), ‘당사자 실태조사’, ‘해외관련 정책 조사는’ 각각 3개소(18.8%), ‘부모, 상담사 대상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지원기관 실태조사’는 각각 2개소(12.5%)가 제공 중에 있다. 또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원’의 모든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기관은 2개소 이상이며, ‘당사자 대상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부모, 상담사 대상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을 희망하는 기관이 5개소(31.3%)이다.

‘예방교육 지원’ 중 ‘학생 대상 예방 교육을 실’하고 있는 기관은 2개소(12.5%),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1개소(6.3%)이며 ‘교사, 상담사 대상 예방교육’을 준비 중인 기관은 1개소(6.3%)이고, ‘예방교육’의 각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각각 5개소(31.3%)이다.

‘홍보 지원’ 사업 중 ‘은둔형 외톨이 발굴 홍보’를 제공 중인 기관은 5개소(31.3%), ‘은둔형 외톨이 인식 개선 홍보’, ‘세미나, 포럼 개최 및 내용 홍보’는 각각 4개소(25.5%), ‘유튜브 제작 및 채널 운영’과 ‘문화공연, 푸드 트럭 등 이벤트 개최’는 각각 3개소(18.8%)가 제공 중에 있다. ‘웹툰 제작’과 ‘도서 출판’은 각각 3개소(18.8%)가 준비 중에 있다.

‘연대협력 지원’으로는 ‘특정기관과 업무협력’, ‘관련 기관 네트워크’에 참여 중인 기관은 12개소(75%)이며 희망 중에 있는 기관도 각각 1개소(6.3%)이다.

<표 4- 26> 은둔형 외톨이 관련 간접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계획

* N=16(단위: 개소(%))

구분	내용	제공 중	준비 중 (1년 이내)	희망
인력양성	또래상담 인력 모집 및 양성	1(6.3)	1(6.3)	6(37.5)
	제가방문 상담 인력 모집 및 양성	1(6.3)	2(12.5)	5(31.3)
	서비스 지원 인력 모집 및 양성	1(6.3)	1(6.3)	6(37.5)
	부모상담/자조활동 지원 인력 모집 및 양성	1(6.3)	1(6.3)	5(31.3)
연구 프로그램 개발	당사자 대상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6(37.5)	1(6.3)	5(31.3)
	부모, 상담사 대상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2(12.5)	3(18.8)	5(31.3)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2(12.5)	4(25.5)	3(18.8)
	당사자 실태 조사	3(18.8)	2(12.5)	4(25.5)
	지원기관 실태조사	2(12.5)	2(12.5)	2(12.5)
	해외 관련정책 조사	3(18.8)	—	2(12.5)
예방교육	학생 대상 예방교육 실시	2(12.5)	—	5(31.3)
	교사, 상담사 대상 예방교육 실시	—	1(6.3)	5(31.3)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실시	1(6.3)	1(6.3)	5(31.3)
홍보	은둔형 외톨이 발굴 홍보	5(31.3)	3(18.8)	4(25.5)
	은둔형 외톨이 인식 개선 홍보	4(25.5)	3(18.8)	3(18.8)
	세미나, 포럼 개최 및 내용 홍보	4(25.5)	2(12.5)	3(18.8)
	유튜브 제작 및 채널 운영	3(18.8)	3(18.8)	4(25.5)
	웹툰 제작	—	3(18.8)	—
	문화공연, 푸드 트럭 등 이벤트 개최	3(18.8)	—	2(12.5)
	도서출판	—	3(18.8)	3(18.8)
	영화, 드라마, 연극, 인형극 등 제작	2(12.5)	2(12.5)	2(12.5)
	조례 제정 촉구 등 직접 행동	6(37.5)	1(6.3)	3(18.8)
연대협력	특정기관과 업무협력	12(75.0)	—	1(6.3)
	관련 기관 네트워크 참여	12(75.0)	—	1(6.3)

5)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인력현황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 인력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직원수 평균은 10.8명이며, 임원수는 2.3명, 직원수는 6명, 자원봉사자수는 2.1명, 사업 전담 인력수는 2.8명, 사업 분담 인력수는 2.1명이다.

<표 4- 27>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의 인력 평균

N=16				
구분	평균(명)	SD	최대값(명)	최소값(명)
전체 직원수	10.8	11.22	1	41
임원수	2.3	2.25	0	7
직원수	6.0	9.32	0	36
자원봉사자수	2.1	4.04	0	15
사업 전담 인력수	2.8	2.51	0	9
사업 분담 인력수	2.1	3.03	0	10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전체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5명’이 7개소(43.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6~10명’ 4개소(25%), ‘20명 이상’ 3개소(28.8%), ‘11~29명’ 2개소(12.5%) 순이다.

<표 4- 28>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의 전체 인력 현황

N=16		
인원수	개소	퍼센트
1~5명	7	43.7
6~10명	4	25.0
11~20명	2	12.5
20명 이상	3	28.8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전담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3명이 8개소(50%), 4~5명 3개소(18.8%), 6~10명 2개소(12.5%)이다.

<표 4- 29>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전담 인력 현황

내용	개소	퍼센트
1~3명	8	50.0
4~5명	3	18.8
6~10명	2	12.5
무응답	3	18.8
합계	16	100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전담인력의 소지 자격증 현황은 사회복지사가 16명(3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타 11명(25%), 상담사 6명(13.6%),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각각

3명(6.8%)이다. 전담인력의 학력은 대학교졸이 17명(38.6%)으로 가장 많고, 석사 14명(31.8%), 박사 2명(4.5%)으로 학력이 높은 인력도 상당수이다. 이 밖에도 고등학교 졸업 7명(15.9%), 전문대학교 졸업이 1명(2.3%)이다.

<표 4- 30>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전담 인력의 소지 자격증 및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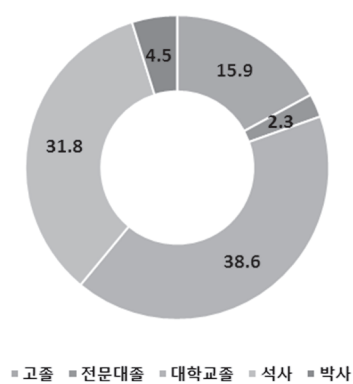
N=44

구분	내용	명	퍼센트*
소지 자격증	상담사	6	13.6
	청소년지도사	3	6.8
	교사	3	6.8
	사회복지사	16	36.4
	기타	11	25.0
학력	고졸	7	15.9
	전문대졸	1	2.3
	대학교졸	17	38.6
	석사	14	31.8
	박사	2	4.5

* 전담인력 전체수 44명을 100%로 하여 퍼센트 산출



[그림 7] 전담인력의 소지 자격증



[그림 8] 전담인력의 학력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의 분담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3명’이 7개소(43.8%)로 가장 많으며, ‘6~10명’ 2개소(12.5%), ‘4~5명’ 1개소(6.3%)이다.

<표 4- 3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분담 인력 현황

내용	개소	퍼센트
1~3명	7	43.8
4~5명	1	6.3
6~10명	2	12.5
무응답	6	37.5
합계	16	100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분담 인력의 소지 자격증은 사회복지사가 14명(41.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상담사가 8명(23.5%), 기타 7명(20.6%)이다. 분담 인력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2명(64.7%)이다.

<표 4- 3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분담 인력의 소지 자격증 및 학력

N=34

구분	내용	명	퍼센트
소지 자격증	상담사	8	23.5
	청소년지도사	—	—
	교사	4	11.8
	사회복지사	14	41.2
	기타	7	20.6
학력	고졸	—	—
	전문대졸	—	—
	대학교졸	22	64.7
	석사	—	—
	박사	—	—

* 분담인력 전체수 34명을 100%로 하여 퍼센트 산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의 자원봉사자 현황은 ‘1~3명’이 3개소, ‘4~5명’ 1개소, ‘6~10명’ 1개소이다.

<표 4- 33>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자원봉사자 현황

구분	개소	퍼센트
1~3명	3	18.8
4~5명	1	6.3
6~10명	1	6.3
무응답	11	68.8
합계	16	100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자원봉사자의 소지 자격증은 기타가 8명(53.3%)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사 3명(20%), 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가 각각 1명(6.7%)이다.

<표 4- 34>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자원봉사자의 소지 자격증

N=15

내용	명	퍼센트
상담사	1	6.7
청소년지도사	1	6.7
사회복지사	3	20.0
기타	8	53.3

* 자원봉사자 전체수 15명을 100%로 하여 퍼센트 산출

6) 사업예산의 외부지원 및 자체 예산 현황

(1) 외부지원 예산 현황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외부지원 및 자체 예산 유무는 다음과 같다. 외부지원이 있는 기관은 9개소(56.2%)이며 없는 기관도 7개소(43.8%)이다. 이 중 정부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있는 기관은 각각 3개소(18.8%)이며, 민간단체 지원이 있는 기관은 4개소(25%), 기업지원이 있는 기관은 1개소(6.3%)이다.

<표 4- 35>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의 외부지원 유무

N=16

구 분		개소	퍼센트
외부지원	있음	9	56.2
	없음	7	43.8
정부지원	있음	3	18.8
	없음	13	81.2
지방자치단체 지원	있음	3	18.8
	없음	13	81.2
기업지원	있음	1	6.3
	없음	15	93.2
민간단체 지원	있음	4	25.0
	없음	12	75.0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외부지원 평균은 전체 응답기관 16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5,498만원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2억 5,259만원이다. 정부지원 평균은 460만원으로 최대 지원 금액은 4,059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원 평균은 1,344만원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1억 3,792만원이다. 기업지원 평균은 438만원이며 민간단체지원 평균은 3,257만원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1억 8,000만원이다.

<표 4- 36>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외부지원 및 자체 예산 평균

N=16(단위: 만원)

구 분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외부지원 전체 평균	5,498	8,160	0	25,259
정부지원 평균	460	1,137	0	4,059
지방자치단체 지원 평균	1,344	3,573	0	13,792
기업지원 평균	438	1,750	0	7,000
민간단체지원 평균	3,257	6,970	0	18,000

외부기관 지원사업 및 지원금의 세부 현황은 아래의 <표 4- 37>과 같다. 정부의 지원 기관과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교육비 지원’, 여성가족부의 ‘사회적응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는 서울시의 보조금, 서울시 성북구의 ‘사각지대 청년 자립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기업의 지원으로는 공간 임차료, 사업비 지원이 있고, 민간단체의 지원으로는 ‘1:1 지원사업 운영 예산’,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이 있다.

<표 4- 37> 외부기관 지원 사업 및 지원금 현황

구분	지원기관명	지원내용	금액(만원)
정부 (3개소)	행정안전부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교육비 지원	4,059
	여성가족부	사회적응 프로젝트	1000
	—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2300
지자체 (3개소)	서울시	보조금	13,972
	성북구	사각지대 청년 자립지원사업	3,358
	—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사업	4,350
기업 (1개소)	사람마중	공간 임차료, 사업비	7,000
민간단체 (4개소)	청년재단	1:1 지원사업 운영예산	16,000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	18,000
		공동생활 프로그램	17,842
		—	270

(2) 자체 예산 현황

자체 예산이 있는 기관은 6개소(37.5%), 없는 기관은 10개소(62.5%)이다.

<표 4- 38>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의 외부지원 및 자체 예산 유무

N=16

구 분		개소	퍼센트
자체 예산 유무	있음	6	37.5
	없음	10	62.5
자체 인건비 유무	있음	4	25.0
	없음	12	75.0
자체 사업비 유무	있음	6	37.5
	없음	10	62.5

기관의 자체예산 평균은 2,935만원이며, 최대 예산은 1억 5,000만원이다. 자체예산 중 인건비 평균은 1,187만원이며 최대 인건비는 7,200만원이며 사업비 평균은 1,748만원이고 최대 사업비는 1억이다.

<표 4- 39>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외부지원 및 자체 예산 평균

N=16(단위: 만원)

구 분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자체예산 평균	2,935	5,685	0	15,000
자체예산 인건비 평균	1,187	2,345	0	7,200
자체예산 사업비 평균	1,748	3,413	0	10,000

기관별 자체 예산 중 인건비가 책정된 기관은 4개소이며, 사업비가 책정된 기관은 6개소이다. 총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54.2%(B기관)이며 사업비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66.7%(A기관)이다. 기관 자체 예산 평균 2,935만원 중 인건비는 1,187만원(40.4%)이며 사업비는 평균 1,748만원(59.6%)이다.

<표 4- 40> 기관 자체 예산의 인건비, 사업비 비율

* 단위: 만원, %

기관	총 예산	인건비		사업비	
		예산	퍼센트	예산	퍼센트
A	15,000	5,000	33.3	10,000	66.7
B	3,322	1,800	54.2	1,522	45.8
F	14,741	7,200	48.8	7,541	51.2
G	300	—	—	300	100
K	13,000	5,000	38.5	8,000	61.5
L	613	—	—	613	100
평균 (16개소 기준)	2,935	1,187	40.4	1,748	59.6

7) 사업운영의 애로 및 요구 사항

1) 사업운영의 애로사항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예산 부분의 어려움을 10개소(62.6%)에서 제시했는데, ‘예산 부족, 재정 자립의 어려움’은 8개소(50%)에서, ‘예산 지원 기관과의 입장차이로 제공 서비스에 제한 발생’, ‘지원처가 매해 바뀌어 안정적 사업 운영이 어려움’은 각각 1개소(6.3%)가 응답하였다. 인력과 관련한 어려움은 ‘인력부족’과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기회 부족’은 각각 2개소(12.5%)가 제안하였다. 은둔형 외톨이의 법적 근거·발굴·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어려움을 제안한 기관은 9개소(56.4%)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프로그램 비용 지불이 어려움’이 3개소(18.8%), ‘은둔형 외톨이의 법적 근거 부재로 공적 지원이 어려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굴기회 제한’이 각각 2개소(12.5%),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낙인으로 고립인의 좌절감 증가’,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진행할 수 없음’이 각각 1개소(6.3%)이다.

<표 4- 41> 사업운영의 애로사항

N=16			
구분	내용	개소	퍼센트
예산	• 예산 부족, 재정 자립의 어려움	8	50.0
	• 예산 지원 기관과의 입장차이로 제공 서비스에 제한 발생	1	6.3
	• 지원처가 매해 바뀌어 안정적 사업 운영이 어려움	1	6.3
인력	• 인력 부족	2	12.5
	•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기회 부족	2	12.5
법적근거	• 경제적 어려움으로 프로그램 비용 지불이 어려움	3	18.8
발굴	• 은둔형 외톨이의 법적 근거 부재로 공적 지원이 어려움	2	12.5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굴기회 제한	2	12.5
프로그램 제공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낙인으로 고립인의 좌절감 증가	1	6.3
	•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진행할 수 없음	1	6.3
기관지원 및 연구	•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학술 연구 모델 부족	3	18.8
	• 기관간 연계 및 교육지원 단체의 협력 필요	1	6.3
	• 관련 자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지원이 없음	1	6.3

2) 해결해야 할 과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11개소(68.8%)로 ‘조례 제정’ 6개소(37.5%),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마련’은 3개소(18.8%),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 증설’ 2개소(12.5%)가 응답하였다.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한 기관은 3개소(18.8%)이며 인력과 관련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을 언급한 기관은 2개소(12.5%)이다.

프로그램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한 기관은 11개소(68.8%)인데, ‘은둔형 외톨이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5개소(31.2%), ‘은둔형 외톨이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프로그램 제공’이 각각 2개소(12.5%), ‘정신과 치료, 상담을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적 지원 방안 마련’, ‘은둔형 외톨이에게 시민 수당 제공’이 각각 1개소(6.3%)이다.

은둔형 외톨이 특성 파악·인식개선을 언급한 기관은 12개소(75.1%)이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 개선’은 6개소(37.5%), ‘은둔형 외톨이 규모 파악 및 발굴 체계 마련’은 4개소(25%),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론, 특성 교육’,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각각 1개소(6.3%)가 언급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간 연계 체계, 지원 시스템 구축’이 2개소(12.5%), ‘은둔형 외톨이 예방을 위한 가정 및 육아교육 실시’와 ‘지원 기관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이 각각 1개소(6.3%)이다.

<표 4- 42>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N=16			
구분	내용	개소	퍼센트
제도적 기반 마련	• 조례 제정	6	37.5
	•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마련	3	18.8
	•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 증설	2	12.5
재원 마련	• 재원 확보	3	18.8
인력 확보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2	12.5
프로그램 확보	• 은둔형 외톨이 관련 프로그램 개발	5	31.2
	• 은둔형 외톨이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2	12.5
	• 일자리 프로그램 제공	2	12.5
	• 정신과 치료, 상담을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적 지원 방안 마련	1	6.3
	• 은둔형 외톨이에게 시민 수당 제공	1	6.3
사회적 고립인 특성 파악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 개선	6	37.5
	• 은둔형 외톨이 규모 파악 및 발굴 체계 마련	4	25.0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론, 특성 교육	1	6.3
인식개선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1	6.3
기타	•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간 연계 체계, 지원 시스템 구축	2	12.5
	• 은둔형 외톨이 예방을 위한 가정 및 육아교육 실시	1	6.3
	• 지원 기관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	1	6.3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언급한 기관은 10개소(62.5%)이며 이중 ‘조례 및 법률 제정’은 6개소(37.5%),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한 기관은 4개소(25%)이다. ‘충분한 예산 확보’를 언급한 기관은 4개소(25%)이며, 인력 확보 및 지원을 언급한 기관은 2개소(6.3%)로 ‘충분한 인력 확보’와 ‘전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각각 1개소(6.3%)이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한 기관은 9개소(56.5%)로 ‘부모, 당사자 상담비 지원’ 3개소(18.8%), ‘공동생활 기숙사 확보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원’ 2개소(12.5%), ‘은둔형 외톨이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은둔형 외톨이를 둘러싼 환경(부모, 학교)에 대한 개입’,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시민수당 제공’이 각각 1개소(6.3%)이다.

은둔형 외톨이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체계 마련’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장기적 지원체계 마련’이 각각 1개소(6.3%)이며, 기타 사항으로는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수립’ 2개소(12.5%),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부모역할 훈련 의무적으로 제공’이 각각 1개소(6.3%)이다.

<표 4- 4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

N=16			
구분	내용	개소	퍼센트
제도적 기반 마련	• 조례 및 법률 제정	6	37.5
	•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25.0
예산확보	• 충분한 예산 확보	4	25.0
인력 확보 및 지원	• 충분한 인력 확보	1	6.3
	• 전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1	6.3
사회적 고립인 지원	• 부모, 당사자 상담비 지원	3	18.8
	• 공동생활 기숙사 확보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원	2	12.5
	• 은둔형 외톨이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보	1	6.3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	6.3
	• 은둔형 외톨이를 둘러싼 환경(부모, 학교)에 대한 개입	1	6.3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시민수당 제공	1	6.3
발굴·지원 체계 마련	• 은둔형 외톨이 발굴 체계 마련	1	6.3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장기적 지원체계 마련	1	6.3
기타	•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수립	2	12.5
	•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1	6.3
	• 부모역할 훈련 의무적으로 제공	1	6.3

5. 은둔형 외톨이를 돕는 방법은 무엇이며 지원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은둔형 외톨이(은둔형 외톨이)를 돕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상태를 진단하여 그에 맞는 개별적 접근방법을 택해 자립까지 이끌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일자리 제공’이나 경제활동 지원, 경제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사회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 개인이 연령, 성, 인종, 장애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회관계’를 탈출하게 된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제공하는 것이며 가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은둔형 외톨이에 초점을 둔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책대상을 명료히 하고 용어의 혼선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를 사용할 경우 대중적인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개념의 혼선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그러나 이 용어가 당사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이 있어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대체할 필요는 아직도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용어에 포함될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작 지원하고자 하는 핵심 대상은 주변부로 소외되고 지원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한 대상을 확정·명시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둘째, 은둔형외톨이 지원을 위해서 특화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그동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업수행과정을 관찰하면 은둔형외톨이가 소외되고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은둔형외톨이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은둔형외톨이 사업이 은둔형 외톨이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다른 대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변질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은둔형 외톨이 개인별, 연령별, 진행단계별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부모들의 적극적 참여, 온라인 및 가정 방문 상담, 부모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당사자, 부모, 실무자,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를 위해 특화된 공적 전달체계와 더불어 특화된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무업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청소년서포터스테이션(the Regional Youth Support Station(이하 RYSS), 잡카페 같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배제되기 쉬운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다.¹⁰⁾

셋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대상 접근의 어려움이 있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실태파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은둔형외톨이 규모 추정이 필요하다. 전국단위 인구조사, 사회조사, 또는 지자체 단위 조사에 관련 문항을 넣어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밝힌 은둔형 외톨이 규모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하여 19~39세의 연령적 범위만 추정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방향은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이다. 이들의 의식주

10) 일본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가 2009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2018년 4월 현재, 67개 지자체에 75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NPO가 위탁운영인데 중산층 가정의 자발적 의뢰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행정적 의뢰에 대해서는 공공비용으로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와 생활, 욕구, 보호자의 상황, 지역사회 지원 실태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당사자 실태조사를 수행한 것도 작은 성과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효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와 부모, 지원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조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스코틀랜드의 16+ 데이터 허브에서 움직임이 없는 청소년을 찾아내어 해당 지자체에서 접촉하고 있다. 수당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등록해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NEET를 발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발굴이 용이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 고등학교 중퇴자 등에 대한 아웃리치 사업 실시, 학교와 연계를 통해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최근 1년의 고등학교 중도 퇴학자를 대상으로 자택방문, 조기 자립과 진로결정을 지원하는 데 이러한 과정이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에 연결된 끈을 놓고 장기화 되기 전에 발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e아동시스템’,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정보연계시스템’ 등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사회를 이탈하여 장기간 집에 머물고 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는 가정 및 지역주민센터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부모의 의뢰 없이 발굴이 힘들며, 발굴한다하더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개입이 어려워 부모의 협조와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섯째,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투입 대비 효과가 높다. 청소년 시기에 투자하여 사회복지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성이 발현되는 학교에서부터 은둔형 외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입시경쟁 패러다임 속에 교실의 학습된 무기력 만연(학교생활에 대한 부담과 무가치감, 교우관계에서의 따돌림이나 폭력 등이 은둔의 직접적 계기로 작용)¹¹⁾, 오래도록 방치될수록 동기가 소진되고 가상현실(인터넷, 게임)로 도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현장에 만연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개인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학점제 도입, 직업교육과정, 대안교육과정 등)이 필요하다. 실제 아일랜드에서는 교육과정 개편과 가정방문 상담자를 배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무단결석자)에 대한 가정방문상담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의 무기력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서울시보다도 작은 나라인 점을 감안할 때 무기력 청소년의 동기 강화, 소속감(친구관계, 동아리 등)을 강화, 무기력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안적 교육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평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비스 대상 발굴, 성과를 내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양적 지표로 일률화 되어 있는 현재의 사업평가방식을 모니터링과 질적 평가로 전환하여 정책집행자와 사업담당자가 양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정책에서 보듯이 사업성과에 대한 집착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오히려 배제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 정책 담당자도, 사업추진기관들도 용이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하여 많은 성과를 입증하기 원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원이 어렵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지원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11) 황순길, 여인중 외(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 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청소년위원회, p. 56.

참고문헌

- 김기현 외(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와 지원방안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세종. 사회적 외톨이 지원의 큰 방향에 대한 의견. 광주광역시 세미나. 토론자료.
- 서울시 (2015).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yesan.seoul.go.kr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 오오쿠사 미노루. ‘한국은둔형 외톨이 추계인구에 관하여’. 발표자료.
- 윤철경 외(2017). 학교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생명의 전화(2019). 고립청년 밀착지원 프로그램.
- 한준(2019).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한국의2019. 통계청·통계개발원.
- Massimiliano Mascherini(2017). 유럽의 무업청소년(NEET): 특성, 비용, 정책, **무업청소년(NEET): 국제적 동향과 대응**. 2017 국제심포지엄(2017.9.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Yuji Genda(2017). 일본의 무업청소년(NEET) 문제. **무업청소년(NEET): 국제적 동향과 대응**. 2017 국제심포지엄(2017.9.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 1

한국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어려움과 관점

오오쿠사 미노루 K2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한국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어려움과 관점

사회적기업 ㈜케이투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오오쿠사 미노루

1. K2그룹의 지원 활동

K2인터내셔널그룹(이하 K2그룹)은 1988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히키코모리’, 학교박청소년, 청년 니트 등 어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해온 민간 단체이다. 일본 요코하마시에 있는 본사에서 공공 위탁사업으로 운영중인 센터를 포함해 상담소, 이바쇼(아지트 공간), 작업장, 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당 등 40개를 넘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간 약 5000~6000 명의 히키코모리 상담을 받고 있다. 일본에는 히키코모리 지원을 하는 전문 단체가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큰 규모를 가진 단체이다.

한국에서는 2012년 10월에 한국법인 ‘㈜케이투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K2코리아)’를 설립하여 한국의 은둔형외톨이 및 어려움을 안고 사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수많은 은둔청(소)년들과 만나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K2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공동생활 사업 (‘내-일-내일 프로젝트’ Share House K2)
2. 일체험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장 운영 (일식 식당 ‘Don Cafe’, 타코야키점 운영)
3. 가족 모임 운영 (‘열쇠방사람들’: 청년재단-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와 공동개최)
4. 초기 상담 (부모/당사자 면담)
5. 아웃리치(가정방문) 지원 (당사자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
6. 피어 서포터스(또래 활동가) 양성 사업 (‘은둔고수’ 양성 프로그램)
7. ‘한일청년포럼’ 활동 (어려움을 안고 사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문제제기)
8. 네트워킹, 사회인식개선, 홍보 활동

처음에 공동생활만으로 시작하여 필요성에 따라 확장하며 이러한 사업을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 특히 한국에서 아직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사회공감대와 지원정책·제도가 없는 것에 의한 경제적, 홍보적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 그거기에 단기적인 수익이 되지 않은 7, 8의 사회인식개선과 홍보, 네트워킹 활동에 힘을 들였고, 한-일 양국의 지원전문가와 현장 지원자, 당사자, 일반청년을 섭외한 ‘한일청년포럼’을 9회, 컨퍼런스 및 심포지엄 등을 8번 개최하여 미디어 노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은둔형외톨이’를 한국사회에서 이슈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 결실이 이번의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가칭) 결성과 조례안 제출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2. 한국에서의 은둔형외톨이 지원의 어려움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생겨날 것을 기대했지만, ‘은둔형외톨이’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가진 지원 단체로 생긴 것은 우리가 아는 한 ‘리커버리센터’가 유일하며, 대신에 비슷한 사업을 운영했던 ‘유자살롱’, ‘소풍가는고양이’, ‘참새의상실’ 등 몇 개 단체가 문을 닫았다. 이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겠는가.

지금 한국에서 ‘은둔형외톨이’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들여보면 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당사자에 대한 아무런 법적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대상자가 비교적으로 경제적 부유층에 많고,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체계에서 배제될 뿐더러 공적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지원에 대한 이슈 공론화가 활발하지 못함
4. 대상자 스스로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5. 제 2의 당사자인 부모 및 당사자에 변화가 생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림
6. 완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듦
7. 지원사업 경험자가 없고 제도가 없기 때문에 늘 인재 부족
8. 예방조치가 시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계속적으로 생산됨(불을 끄려는 노력 옆에서 계속 방화를 하고 있는 상태)

위는 지원활동을 하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면, 당사자와 가족은 아래와 같은 어려움 또 겪게 된다.

1. 어디로 가면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음
2. 정신과에서는 약 처방만 받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 당사자의 고립감이나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경우가 대부분
3. 심리상담을 다니려고 해도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상담사가 거의 없고, ‘본인이 직접 나와야 상담 가능’ ‘본인이 말을 해줘야 상담 가능’이라는 원칙 때문에 아예 상담을 못 받거나 어찌 어찌 받으러 가도 입을 열지 않아서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
4. 공적 서비스인 동사무소의 가정방문상담 서비스가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신청을 해서 상담사가 집을 방문해도, 당사자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 상담을 못하는 일이 5번 반복되면 지원이 종료된다는 규칙이 있음
5.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가정에서는 비용이 드는 많이 지원을 받기 힘들(상담,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
6.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가정에선 그나마 있는 공적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원 프로그램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음(희망플랜, 청년수당 등)
7. 당사자가 스스로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설득해야 하는데,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도 많음. 부모가 지원해주지 않는 당사자가 가장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8. 자폐, 아스퍼거, ADHD 등 가벼운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특성을 이해 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지만, 그런 직장이 없음

그동안 300 명을 넘는 사람들의 상담을 받으면서 이러한 고민을 많이 들어왔다. 우리는 이런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3. 한국과 일본의 은둔형외톨이 차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단체’로서 한국과 일본의 은둔형외톨이가 어떻게 다른지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사회 구조나 양상 차이에 기인한 여러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동남정신과의원의 여인중 원장은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에스프레소라면, 한국의 은둔형외톨이는 카페오레”라고 표현했지만, K2그룹의 카나모리 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은둔형외톨이는 똑 같다. 단지 속도와 정도가 다르다. 한국이 더 빠르고, 또 격하다”고 지적했다. 필자도 한국에서 알려진 일본의 히키코모리 상은(어쩌면 일본 국내에서도) 아주 일면적이고, 심각한 케이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한 듯하다. 실제로는 그 양상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하고, 나름의 활동을 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나 은둔과 활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우도 많다. 동시에 일본보다는 가볍다고 치부되고 있는 한국의 은둔형외톨이도, 화장실조차 안가고 방 안에서 처리하거나, 은둔이 10년, 20년 된 경우 등 심각한 사례도 많다.

4. 무중력과 과중력

전 사회적기업 유자살롱 이충한 공동대표는 은둔형외톨이 상태로 지내는 청년을 ‘무중력청년’이라고 표현했다. 사회가 그들을 당기는 소속감, 관계와 같은 적절한 중력이 없어서 이들이 뒹뒹 떠다니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중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수많은 당사자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중력이 없어서 무중력인 걸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대부분 청년들을 보고 싶으면 사회가 그들에게 아무런 중력을 주고 있지 않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부모를 비롯한 너무나도 무거운 중력 속에서 자신의 몸무게조차 버티지 못하고 있거나, 자신을 당기는 많은 중력에 좌우로 당겨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필자의 결론은 이것이다.

“은둔하는 청년들은 ‘과중력’과 ‘다중력’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적절한 중력 감각을 잃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구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달의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두 아이가 양쪽에서 당겨 찢어지게 된 인형처럼, 자도 일어나도 항상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중력장 안에서는 아주 우수한 활동 프로그램과 같은 ‘적절한 중력’도 그 효과를 충분히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중력을 주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은 그 과중력 상태를 해소하여 너무나도 무거운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두 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평가’의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과중력 상태 해소)
2.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재미’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적절한 중력 부가)

1은 은둔의 원인제거를 끊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님의 인식개선, 부모와 따로 사는 공동 생활 참여,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의무에서의 해방과 다른 비전 제공이다.

그리고 2는 가벼워진 그들에게 그동안의 고립 생활에서 기르지 못했던 생활력, 관계 형성 능력, 안전한 실패 경험, 다양한 교류와 같은 경험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일이다.

때로는 그들의 과중력을 때어낼 정도로 강한 2번 매력 중력을 먼저 발견해서 은둔을 탈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을 잡고 있는 과중력과 사회적 낙인에 의한 자기부정감이 훨씬 더 강력하다.

1은 사회적으로는 청소년/청년들에게 대학진학과 대기업 취업만을 지상 목표로 삼는 사회 분위기에서 다양성이 있는 삶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전환이자, 주입식인 교조주의 상대평가 교육 시스템과 효율지상주의, 돈 지상주의 자본주의에서의 전환이다. 사람을 생산성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잣대로 ‘단죄’하게 된 사회 분위기가 은둔형외톨이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모와 사회가 주는 중압을 제거해야 2의 활력증진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한다.

5. 은둔형외톨이의 진행과 지원 과정

아래에 은둔형외톨이의 진행과정과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당사자는 은둔하고 있는 사람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가정 전체라는 것이다. 부모도 치유를 받고 중압에서 해방되어야 아이도 역시 완전한 해방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원리다.

또한 그 다음의 표처럼 생활기반과 건강관리가 되어 있어야 안정적인 일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는 전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사자인 청년/청소년과 부모들의 호소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며, 효율주의를 넘어서 시각으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은둔형 외톨이의 진행과 지원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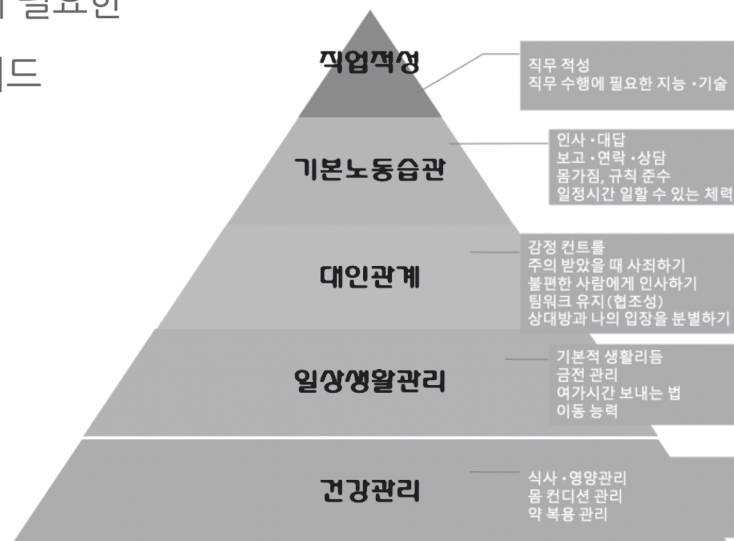
단계	당사자의 특징적 경향	가족의 특징적 경향	각 단계의 지원 대책
관계 형성 단계	부모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 애착결핍.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착한 아이'로 지내다가 주어진 요구와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함. 자존감 형성이 안 되고 불안해지며 자기표현을 잘 못함. 선/후천적 발달의 어려움이 배경이 되는 경우도 많음.	자녀에 대한 엄격하고 권위적인 태도, 가치관 강요, 과도한 간섭, 일방적 소통, 방치, 잦은 잔소리, 폭언, 폭력, 경건한 신앙 등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절대적 가치관으로 자녀의 사고와 진로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함.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많음.	부모에 대한 예방 교육, 가족 간 소통 촉진. 자녀의 자존감 형성과 발달장애에 대한 교육. 차이를 인정하며 경쟁보다 다양성을 주요시하고 개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전조 단계	학교, 직장 등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왕따 등 어려움이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여 신체적·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남. 학교/회사에 가려고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거나 등교거부, 대인공포, 우울감, 책임회피행동 등.	자녀의 마땅치 않은 행동을 비난하고, 사회통념·상식으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며 본인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기 어려움. 문제를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를 요구함.	당사자에게는 휴식, 가족에는 여유가 필요함. 부모 상담 필요.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하며 본인에게 지나치게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함.
은둔 진입단계	등교거부, 학교 자퇴, 퇴사 등을 계기로 속마음과는 반대로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짐. 많은 경우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차 끊게 됨. 자기부정감과 자기 합리화가 동거. 부모에 대한 반발 또는 체념. 본심은 자신만의 삶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큼.	사회통념에 따라 자녀를 학교/사회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며 응하지 않는 자녀와 충돌. 부모의 관념과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인정하기 어려워함.	부모 상담, 당사자에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제공. 성급한 사회 복귀시도는 피해야 함. 가족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지원해줌. 적절한 지원자와의 만남이 중요.
은둔 심화단계	은둔이 지속되면서 정신적 이차증상 발생. 강박증, 과식/거식증, 인터넷/게임중독,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를 미워하고 절망함.	자녀의 이차 증상을 보고 정신과에 데려가지만 크게 효과가 없음. 심리상담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거부하여 앞길이 막막함.	우울증, 조현병 증상이 있으면 정신과 대응도 필요할 수 있음. 기타 이차증상은 당사자에 대한 접근이 효과가 적고,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는 '대화의 길'을 여는 접근이 필요.
은둔 고착단계	은둔 생활이 오래되면서 소속이 없고 관계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짐. 삶에 대한 체념, 자폭자기 경향, 부모에 대한 원망과 사랑, 포기와 집착이 혼재함. 자해, 자살충동, 우울감이 지속함. 씻지 않고, 과식 또는 거식, 운동부족, 밤낮 바뀐 생활로 건강이 나빠짐.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로 부모에게 정신적/신체적 증상이 나타남. 자식의 문제로 부부간 갈등이 심해짐. 부모가 자녀를 구출하는 것만이 삶의 소원이 됨.	부모가 고착된 통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 자녀와 부모의 소통의 길을 열어주고, 부모가 아이에 대한 통제욕구를 내려놓고, 자녀와 진지하게 소통하며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수용하며 인정하는 것이 중요.

지원기관과의 만남

지원초기 · 모색단계	지원자의 개입을 통한 부모의 변화를 느끼며 굳었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짐. 또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앎. 상담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인정하고 은둔 상태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조금씩 생기지만, 아직 겁이 많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	지원전문가 및 같은 상황에 놓인 부모를 만나 부모가 고립에서 벗어나 위안을 받음. 자녀에 대한 통제욕구를 내려놓고 그대로 인정해야 함을 알게 되지만 아직 어려워함. 부모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녀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연습을 하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부모지원 프로그램을 시작.	먼저 그동안 고독했던 부모와 당사자 쌍방의 삶을 그대로 인정함. 당사자가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소통을 매개해줌. 쌍방에 있는 고착된 가치관을 제거하여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제시함.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부모와 거리를 두며 생활력을 키우면서 부모의 제어·영향력을 잊게 함.
회복단계	지원기관 내에서 지원자 및 친구와의 작은 인간관계를 형성. 규칙적인 개인 생활, 모임 참석 등 낮은 수준의 사회관계를 시작. 남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앎. 스스로 '난 이래도 괜찮다'를 얻음.	다시 시작된 자녀의 불안정한 걸음을 간섭하지 않고 뒤에서 따뜻하게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함. 부모자조모임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익힘. 지원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녀에 대한 태도를 지도 받는 것이 필요.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곁에서 같이 걷는 동료와 선배, 상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어진 '역할'이 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고민을 옆에 두고 부모 스스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줌.
자립준비 단계	안전한 공동체에 소속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면서 자존감이 향상됨. 서로 돕는 협조심, 실패해도 괜찮다는 여유와 안심감, 거부를 할 수 있는 자신감, 자기표현력을 얻음.	자녀의 새로운 소속과 의사결정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존경으로 응원함.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 부모 스스로의 인생일 삶.	당사자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작은 좌절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자기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거 경험이 주는 의미'를 때어내며 존잘르 인정해줘야 함. 자기만능감을 심어줌. 당사자가 속하는 공동체 환경이 안전한 공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함.
자립단계	회복되면서 생기는 욕구에 따라 취업, 창업, 학업을 시작하여 꾸준히 함. 완벽을 추구하거나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남에게 부탁하고 의뢰하고 의존할 줄 알고,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	자녀의 새로운 인생을 인정하고 응원하며 새로워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지함. 자녀와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하며 가볍게 또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됨.	당사자와 가족에게 열린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면/정서면 양쪽에서 서포트. 다시 좌절을 겪어도 언제든 다시 와서 의지해도 되는 사람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본인과 부모가 실감하게 함.

자립된 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피라미드

①환경변화
②직업생활을 이어나가는
토대 만들기



토론 2

대상자 특성, 범주 및 지원원칙

김혜원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대상자 특성, 범주 및 지원원칙

김 해원(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1. 대상자 특성

○ 행동 측면

- 일정 기간 이상(3~6개월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활동
-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매우 제한된 사회활동
(등교거부나 학교중퇴, 비지속적 경제활동)
- 식사나 수면 패턴의 불규칙함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몰입
- 독서나 일부 취미활동 몰입
- 외모를 가꾸거나 위생 돌보지 않음
- 방안 정리정돈 무관심
- 최소한의 돈 쓰며 제한된 소비
- 상담이나 정신과 도움
- 폭언, 폭언(집에서만 국한되는 경우 대부분)

○ 인지/정서 측면

- 우울
- 불안, 초조
- 자살충동
- 낮은 자존감
- 감정표현의 억제
- 자신을 이상하게 볼 거라는 피해의식
- 타인과 주변환경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만들고 있다는) 분노
- 간섭과 지시받고 싶어하지 않음
- 자신의 상황/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외로움
-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열등감
- 뒤처지고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 무망감
- 자신의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
- 가족이나 주변사람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 성격/대인관계 측면

- 내향성

- 비사교적 성격
- 대인관계 민감성(상대와 집단의 반응에 민감함, 상처)
-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취약함
-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 감정표현의 미숙함
- 주변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요구하지 않음
- 어려움 발생 시 도움요청에 미숙
- 수동적인 문제해결 태도
- 갈등발생 시 철회나 관계단절
- 일부 가족에게 과도한 의존이나 인정 확인

2. 대상자 범주

○ 연령

- 일본의 경우, 15세 이상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2019년 내각부 조사에서 40대 이상 중년이 큰 비중을 차지함(히키코모리 115만 명 중 40대 이상이 61만 명 (53.1%). 중앙일보, 2020.01.13)
- 또한, 같은 조사에서 히키코모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확인됨(5~10년 14.9%, 10~20년 17.0%, 20년 이상 19.1%)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90년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던 은둔형외톨이 청년들이 현재 40대의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음(박대령, 2020). 최근 실태조사에서도 은둔의 상태가 1~15년까지로 장기적 상태인 경우가 확인됨(파이교육그룹, 2019)
- 이를 볼 때, 은둔형외톨이의 연령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대신, 정의와 기준에 부합되는 특성을 갖는 대상자들에게 대응과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연령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 활동성

- 은둔형외톨이 특성이 다양한 만큼 이러한 특성을 모두 보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분됨. 특히 대상자의 활동은 편차가 큼. 대상자가 외출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가 아닌 극히 제한된 자신이 원하는 활동만을 하는 경우가 많음(예: 편의점, 아이템 구입 등)
- 따라서 방안 혹은 집안에만 있는 이들로 정책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대상자가 크게 축소될 수 있음
- 참고 : 기간과 증상에 따라 다른 히키코모리(일본 내각부, 2019)

상 태	특 징	상 태
-----	-----	-----

광 의		취미관련 일 볼때만 외출한다.		준
		집 근처 편의점 정도만 외출한다.		협 의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정신질환 관련

- 은둔형외톨이들 중 일부는 신경증 혹은 정신증적 증상을 보이고 이로 인해 정신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경우가 있음
-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었거나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은둔형외톨이와 구분하고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임
 - 은둔형외톨이 현상과 정신질환적 특성의 인과관계 모호
 - 치료에 응하는 대상자의 적극성이 진단과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은둔의 장기화가 정신질환적 특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즉, 명백한 정신질환과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적 도움 외 지원은 전무함
- 따라서, 정신의학적 진단과 치료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은둔형외톨이 특성이 분명하고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

3. 지원 원칙

○ 예방 및 초기경험자를 위한 지원

- 시작 및 초기단계와 관련된 요인파악을 기초로 은둔 악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
 - 현장 전문가(교사, 청소년지도자, 상담자 등) 및 부모 면담, 스크리닝도구 개발
 - 보고서 및 매뉴얼 제작, 현장 배포
 - 예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 적용 필요(공교육, 청소년현장 등)
 - 위 결과물을 연구물로 게재, 간담회, 언론 배포 등

○ 악화 완화가 필요한 대상을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

- 은둔형외톨이 특성상 1:1 상담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방문상담, 온라인상담의 적극 활용이 필요함

- 대상자별 특성 파악에 맞는 맞춤형 개입이 필요함. 개인의 심리적 건강, 본인 및 주변자원, 고립에 따른 피해, 욕구 등에 따른 맞춤형 개입이 필요함
- 대화 과정이 곧 치유와 회복임을 유의해야 함(검사, 탐침심사 자제)
- 자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연결이나 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

○ 사회복귀가 가능한 대상을 위한 지원 (+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 병행)

<함께하기>

- 집단상담
- 동아리활동
- 아지트 모이기/자조모임 참여하기
- 유경험자/멘토 만나기 등

<사회 복귀하기>

- 진로적성 탐색하기
- 학력 및 필요역량 보충하기(‘상담적 가정교사’ ‘젊은이 자립학원’)
- 원하는 진로부분 참여하고 배우기 등

○ 안정적 가족관계 재구축(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

- 대상과 목적별로 부모 vs. 자녀에 대한 별도의 케어가 필요함
- 정책과 지원의 우선적 목적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함
 - 고립청년이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부모와의 관계 개선은 이후 목표가 되는 것이 효과적임
 - 부모가 혹은 부모를 통해 고립청년 상태를 완화하는 것은 제한적임
 - 부모의 심리적 고통 완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케어가 필요함

참고자료

- 김신아(2019).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숙, 박진희, 최지원 (2012). 은둔형 외톨이 : 세상으로 나오기가 두려운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서울: 학지사.
- 김종진(2006). 달팽이 껍질 속으로 숨은 외톨이. 서울: 해피아이.
- 노여진(2007). 일본의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와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의 비교 고찰 : 발생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대령(2020). 「‘은둔형외톨이’ 지원방안 세미나 - ‘은둔형외톨이’ 국내외 지원 현황과

- 쟁점 진단」 자료집.
- 여인중(2005). **히키코모리**. 서울: 지혜문학.
- 여인중, 이영식 (2012). 청소년정신의학, Part3-23 은둔형 외톨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편저). 서울: 시그마프레스.
- 오상빈(2019). **은둔형 외톨이 가정방문 상담 프로그램(HCH)개발과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베 우시오(2009).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세상과의 소통을 갈구하는 23명의 이야기**. 이성동역 서울: 대숲바람
- 이시형 외 (2000). **외톨이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지민(2019).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은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향남(2008).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생태체계적 통합 지원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중앙일보(2020.01.13.) ‘**집에 틀어박힌 중년 61만명... 쉬쉬했던 여든 부모는 울었다**’
- 파이교육그룹(2019).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보고서**. 청년재단
- 채창균, 양정승, 김민경, 송선훈(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94.
- 청소년위원회(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 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토론 3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의 부모가 원하는 지원방향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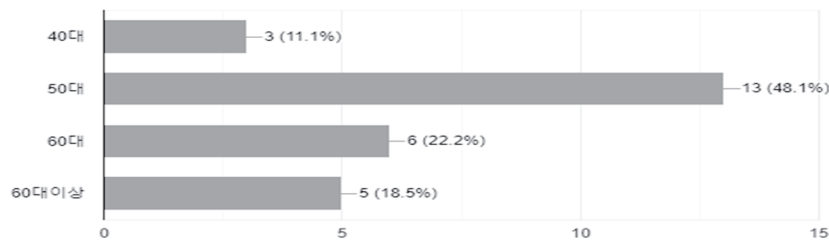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의 부모가 원하는 지원방향

주상희(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2020.7월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에서 설문조사 실시하여 27명의 당사자 부모 조사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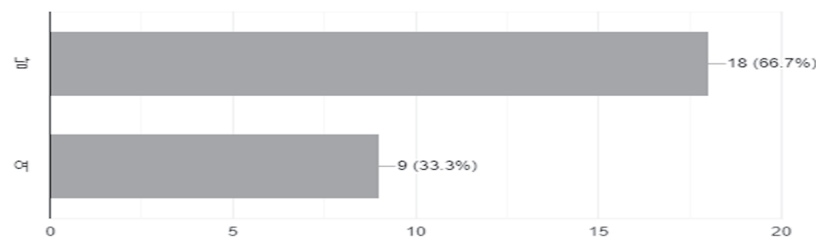
부모들의 연령대가 50대 48.1%, 60대 22.2%, 60대이상 18.5%, 40대 11.1%로 부모의 연령대로 보았을 때 자녀들은 고학년 청소년 or 청년의 비율이 높다.

응답자(부모)의 연령대
응답 27개



은둔형외톨이의 성비로는 남성이 66.7%, 여성이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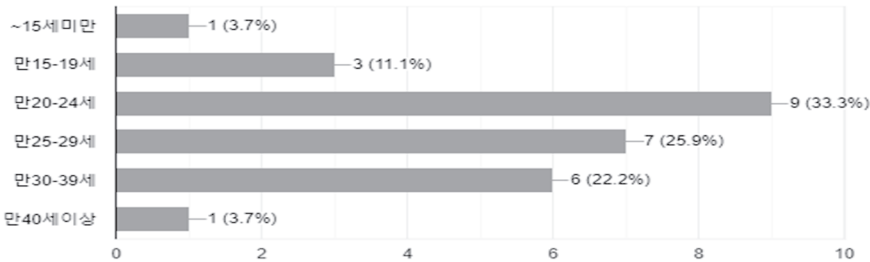
은둔자녀의 성별
응답 27개



자녀의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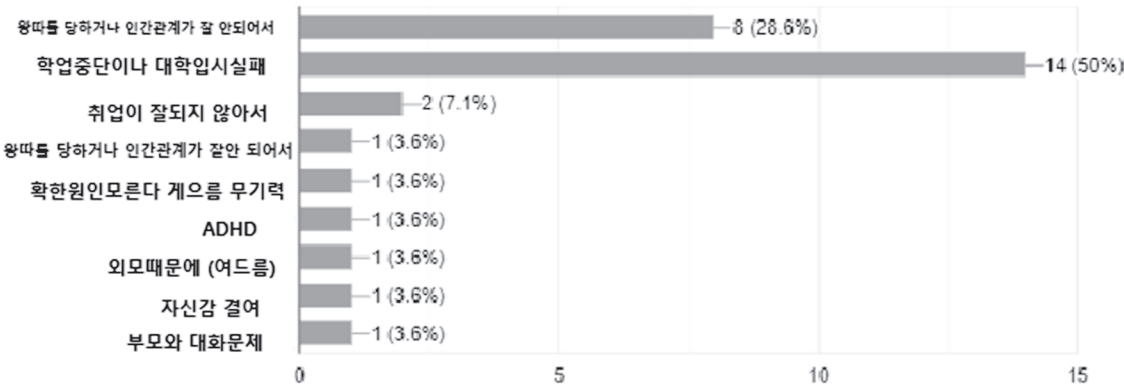
20-24(33.3%), 25-29(25.9%), 30-39(22.2%), 15-19(11.1%), 15세미만과 40세이상 (3.7%)
청년층(20-39세) 81.4%, 청소년(-24세) 48.1%로 나타나므로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이들에 대한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녀의 연령대(or 당사자)
응답 2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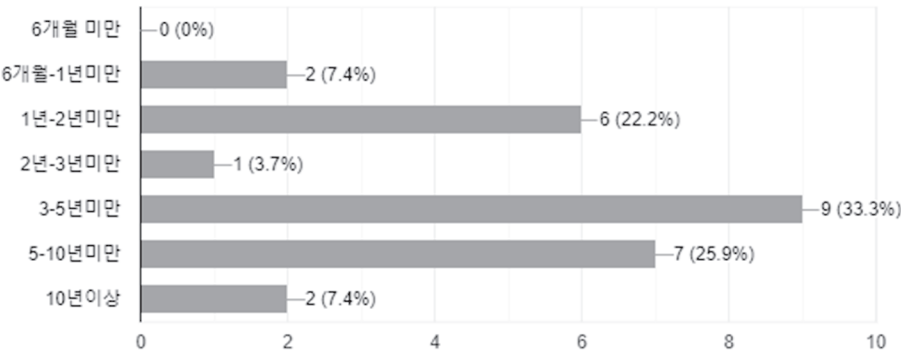
학업중단과 대학입시실패, 따돌림, 취업등이 원인이 되어 사회적, 정신적 압박에 의하여 은둔이 시작하였다고 보여진다.

처음 고립하게 된 계기
응답 27개



자녀의 은둔기간은 3-5년(33.3%), 5-10년(25.9%), 1-2년(22.2%), 10년이상(7.4%), 2-3년(3.7%) 순으로 나타났다.
3년이상 은둔상태가 장기화된 대상자가 66.6%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자녀의 은둔기간
응답 2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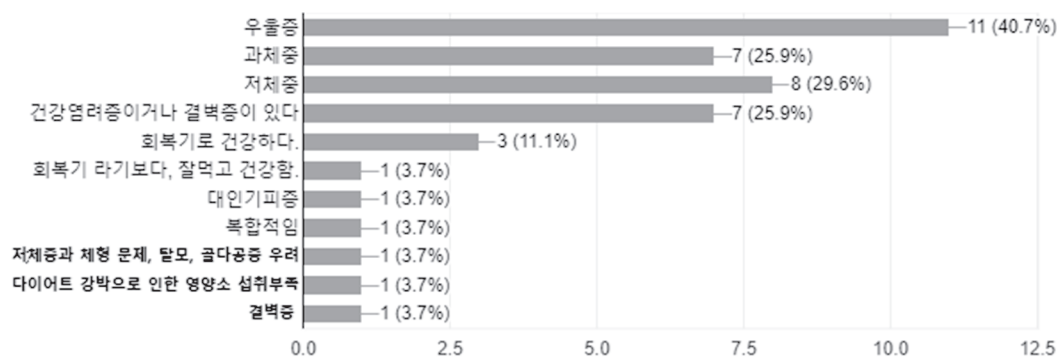
은둔자녀의 건강상태는

우울증이 40.7%, 저체중이 29.6%, 과체중 및 건강염려증이거나 결벽증의 비율은 25.9%, 회복기로 건강함 11.1%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적 응답으로는 건강함, 대인기피증, 복합적, 오래 앉아있어 체형 문제와 탈모, 골다공증 의심, 다이어트 강박으로 영양 섭취 부족, 위장장애·두통·무릎 관절 문제를 답변하였다.

은둔형 외톨이들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 비율이 높고 그 밖에 체중 및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은둔자녀의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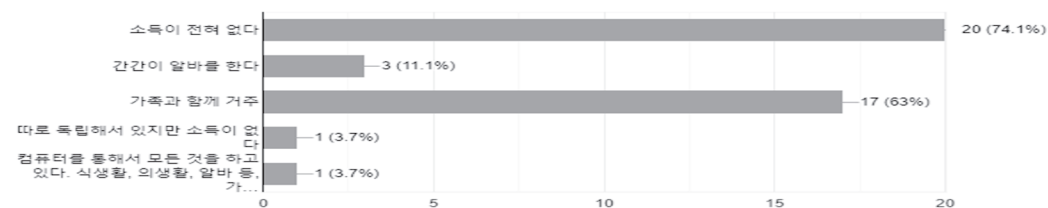
응답 27개



은둔형외톨이는 소득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만의 공간 방안에서 거주하고 있다. 독립할 의사도 독립의 의지도 없다.

은둔자녀의 소득 및 주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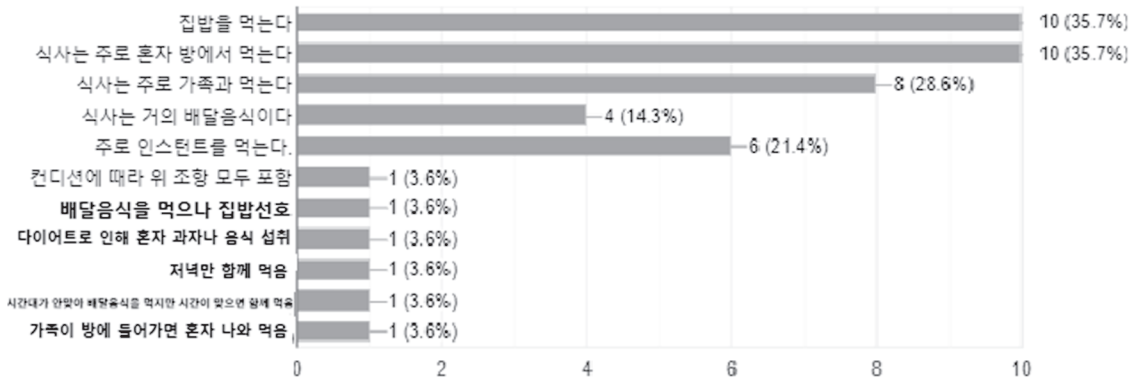
응답 27개



은둔 자녀의 식생활은 집밥을 먹는다. 식사는 주로 혼자 방에서 먹는다는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과 먹는 비율이 29.6%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인스턴트를 먹는다 (22.2%) 배달음식을 먹는다 (14.8%)가 주를 이루었다. 주로 혼자 먹지만 시간대가 맞으면 가족과 함께 먹는다. 저녁만 가족과 먹는다가 개별적으로 나타났다.

은둔자녀의 식생활

응답 27개



<부모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1. 가족과의 소통
2. 사회에 나갈수 있는 연결고리 만들기
3. 부모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로는 자녀문제로 인한 고민상담등
개인상담 지원 70.4%로 가장 높다. 상담경비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다 라고.
4. 방문 상담 프로그램 필요- 방문 조차 열어주지 않을 때. 대화를 일절 하지 않을
때 대처 방안이 없다.
5. 사회적 시선
6. 모든상황, 가정환경, 자녀의 상태, 원인등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거기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의 필요
7. 자녀로 인하여 모친의 정신적 고통.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음. 부모들의 써포터즈
필요
8. 처음 은둔하기 시작할 때 대처 방안등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당황하고
대처가 미흡하다. 관계기관을 찾을 수 없다.
9. 은둔 초기,중기,장기등 상황별 단계별 적극적 개입등 세부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10. 청소년에서 청년기에 넘어가는 나이 관계상 일관성 있게 전문적 관계기관의 필요
11. 전문가 양성의 필요
- 12.가족이 아닌 친구 만들기가 절실히 필요
- 13.은둔자녀의 건강지원 프로그램 필요

※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방 안에 있는 은톨이들을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하는가?
이다.

점점 어려워지는 연령대와 장기화되는 문제를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지원이 필요하며 인생전반에 걸친 장기적 투자지원이 절실하다.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

1. 자녀로 인한 고민등 개인 상담비 지원 70.4% 상담경비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다.
2. 고립 은둔에 대한 이해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지원 63%
3. 유사문제를 겪고 있는 부모들의 집단상담, 자조모임 지원 74%
4. 은둔형외톨이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 모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자녀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부모써포터즈 필요)
6. 청소년, 청년기 은둔형외톨이 지원 학교 설립(학업과 자존감을 살리고 본인자신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독려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 경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 필요)
7.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법등 오해를 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지원. 연구개발, 교육등 필요

심리적 안정,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며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나타낸다.

<부모협회가 필요로한 지원>

국가적, 지자체적,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0. 8. 25

토론 4

꿈터학교 사례로 본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과 지원방향

배영길 꿈터가정형대안학교 대표



꿈터학교 사례로 본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과 지원방향

배영길(꿈가정대안학교 대표)

청소년기 발생과 예방, 조기 개입의 필요성

〔사례 I 민이 이야기〕

민이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알게 된 은둔 청소년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교를 가지 않고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싫어 1년 넘게 집에만 있던 아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틈사이로 새어들어 오는 햇빛과 불빛이 싫어 문틈에 테이프를 붙이고 생활할 정도로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세상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심한 우울증과 일관되지 못한 양육태도로 인하여 불안감이 점점 심해졌고 자존감이 낮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충돌에도 쉽게 좌절하고 상처를 받아 울거나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는 등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주변 상황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은둔 생활이 길어지면서 집에서는 거침없는 분노표출로 욕설과 더불어 방문과 식탁유리 등이 깨져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심각한 가정문제로 이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민이는 왜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만의 벽장 속에 갇히게 되었을까? 아이의 삶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민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피혁회사에 다녔고, 어머니는 병원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적장애 3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언니 또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나 가출을 반복하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학생과 짬질방 및 남학생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어머니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친척들 간의 왕래나 이웃 간의 교류가 없었다.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점점 민이는 어머니와 언니처럼 소통의 단절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민이는 학교에 진학하기 전 가정 내의 적절한 돌봄과 부모와 상호작용의 부재로 대인공포, 우울감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두운 방에 혼자 누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교도 너무 가기 싫었고,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길었던 기간이 한……. 8~9개월 정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누워 그냥 잠만 잤다. 잠에서 깨면 그대로 누운 채 상상을 했다. 상상 속의 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들고, 친구들과 함께 장난도 치고, 재밌게 노는 즐거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어두컴컴한 방 안에 죽은 듯이 혼자 누워있는 현실 속의 내가 느껴졌고, 그 때마다 쓸쓸하고 공허한 무엇인가가 쿵쿵 쭈시고 지나가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 온몸을 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 불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또 잠을 잤다. 그런 나를 일으켜 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모님과 꿈터 선생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방에 누워 죽은 듯 잠만 자며 지내던 생활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되었다.

<민이의 자서전 중 발췌>

가정 내에서의 민이의 생활은 단절 그 자체였다. 부모의 충분한 보살핌과 사랑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민이와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민이가 얼마나 학교를 다니는 게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너무 힘든 학교생활

민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새로 친구들을 만들어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학기 초부터 남자 짝꿍이랑 다투게 되었다고 한다. 책상선 넘은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그 소릴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왜 그러셨는지 민이만 교탁 바로 옆에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문을 등 뒤로 하고 앉아 수업을 받는 벌을 주었다고 한다. 칠판을 보고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옆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들어야 했던 것이다. 너무 창피했지만 그 날 하루만 넘기면 되니까 껴참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선생님께서는 1학기 내내 그 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학기 초라서 아직 애들 얼굴도 잘 모르고 서먹서먹할 때였는데...민이 혼자만 맨 앞자리에 앉아 민망한 모습을 반 아이들에게 보이며 지내야 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창피하고 곤혹스러웠다고 한다. 그 후 여름방학이 끝난 개학날부터

민이 스스로의 힘으론 교실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학교에 일찍 가면 애들이랑 마주칠까 두려워 일부러 늦게 학교를 갔다고 한다. 교실 앞까지 가서도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복도를 서성이다 반 애들이나 선생님에게 발견되어 교실로 질질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끌려 들어가던 그 때 기분과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려온다고 했다. 쳐다보고 있던 아이들의 눈과 마주 보기가 두려워서 늘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실로 들어가 우두커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죄진 것도 없는데...하루하루가 두려움과 고통의 연속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민이가 교실에 들어가면 맨 앞, 머리에 떠올리기조차 치욕스러운 맨 앞 자리에 앉아 뒤에서 애들이 뭐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궁금할 때에도, 차마 뒤돌아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움츠러들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어 수치심이 점점 깊어질수록 민이 는 몸에서 기운과 자신감이 점점 더 많이 빠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다고도 했고 아이들 사이에서 밥을 먹는 것도 부끄럽게 느껴져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 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고도 했다.

<민이 인터뷰 중 발췌>

민이의 은둔의 요인은 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인격이 없는 학교 교사가 어린 민이를 더 이상 학교에 머물지 못하도록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이상 민이가 정서적으로 심각해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문제완화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자”

민이를 처음 만났을 때 상당히 마른 체구에 붉은색 안경테를 착용한 암전한 여학생으로 작은 목소리로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고 묻는 질문에 웅얼거리는 등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다.

상담 중 민이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중학교에 입학한지 한 달 반 정도 다니다 결국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먹고 자기만 하던 민이를 만났다.

아이가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데리고 나

오고 싶었지만 민이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2년 넘게 은둔생활을 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몸에 배었던 민이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관계 맺기 “세상과의 조우”

가정방문을 통하여 관계형성 후 점진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장기적인 줄다리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민이네 집을 수시로 찾아가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생활지도를 하고 가족 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특히 친밀하고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도록 부모역할에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선 민의 눈높이에서 간단한 대화와 더불어 상담을 하면서 집 앞 공원에서 배드민턴과 산책을 통해 민이 마음의 쪽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렇게 민이를 만난 지 6개월만에 민이 언니가 롯데월드에 가보자는 제안을 했고 망설이던 민이는 한번 가볼까요? 라고 작은 용기를 내어 말을 했다. 롯데월드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순간 민이가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쳤다. 나는 민이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안심을 시킨 후 3번의 시도 끝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성공 우리는 롯데월드에서 오락도 하고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주일에 2번씩 바깥활동을 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부모님에게 기숙형 대안학교에 입학할 제안을 했다. 민이가 공동체생활을 통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남들과 어울리는 방식을 배우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부모님 두 분은 흔쾌히 승낙을 했으나, 민이는 모르겠다는 같은 말을 되풀이 하여 말을 하였다.

행동변화와 성장 “특단의 조치를 취하다.”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과 망상에 환청까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혼자만의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부모 상담과 교사회의를 통하여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면회를 하면서 민이의 상태를

체크하고 주치의와 상담을 하면서 행동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의논하였다. 역시 답은 환경을 바꿔주고 본인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퇴원 후에는 민이의 의심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민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스스로를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민이 곁에서 부모 같은 마음으로 지도해줄 분이 필요했다. 마침 상근교사이셨던 최 선생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더디지만 조금씩 민이는 변하기 시작했다. 정서적인 결핍, 정서적 허기가 마음에 자리잡고 있어 공상을 통한 비현실적인 대인관계에 집착하는 행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 모든 변화는 최생님의 민이에 대한 사랑과 긍정적 반응, 감정적 따스함을 제대로 경험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례Ⅱ 용준이 이야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고 어머니의 가출

용준이가 5살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고, 도망치듯 서울의 작은 지하 단칸방으로 옮겨오게 되었다고 한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부모님의 말다툼이 심해졌다고 한다. 부모님의 갈등의 골은 심해져 초등학교 5학년 때 급기야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다고 한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자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 이후로 더 일에만 전념하셨으며 그 때 용준이는 집에 혼자 방치되다시피했고, 그때 당시 놀고 싶은 마음에 학교에 가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누구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보니 학교생활은 엉망이었고, 공부는 지루했고,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몰랐다고 한다.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피시방과 놀이터 같은 데에 다니면서 놀았다고 한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혼내서 학교에 보내셨던 아버지도 용준이가 계속적으로 학교를 빠지자 포기하신 듯 아무 말 없이 일을 나가셨다고 한다.

방구석 폐인 생활의 시작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학교를 빠지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지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이유는 가출 중에 가방과 교과서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학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집과 피시방을 오가며 컴퓨터 앞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시방에서 아는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형의 옆에는 컴퓨터에 서툴러 찢찢매고 있는, 멍해 보이는 인상의 다른 형이 있었지요. 그게 제 평생의 막역지우인 영수 형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영수 형은 집에서만 틀어박혀 있던 저를 밖으로 끌어내준 형입니다. 밖이라고 해봤자 같이 게임하고, 얘기하는 수준이었지만, 그 당시의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지요. 하지만 영수 형을 만나서 노는 것 외에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삼 년이 계속되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요.

세상 밖으로

처음 복지관 선생님이 오셨던 날,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대인기피증 비슷한 게 있어서, 타인과 대화하는 것을 무서워했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날 역시 방안에서 숨을 죽이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선생님은 또 찾아오셨고, 누가 자꾸 찾아오는지 궁금해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 때가 선생님과 첫 만남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절 데리고 일단 씻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물에 닿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해서 몇 달간 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에서는 온수가 나오지 않았기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씻는 것 말고도 계획표 짜기, 경로식당에서의 봉사활동, 그리고 저를 도와주실 몇 분의 선생님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없던 저였기에 시늉을 하다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임 선생님께서 꿈터학교라는 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 한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홍 선생님이었습니다. 몇 분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오셨다가셨기에 별 의미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생각은 나지 않지만 꿈터학교에 다는 것에 대한 짝막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짝막한 이야기가 제 인생의 그림 한 폭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준이 자서전 중 발췌>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을 가진 소년이 교사가 되다.

저는 15살 때 학교를 나왔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외출이라고 해봐야 PC방에 가는 것밖에 없었던,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지내본 적도, 따뜻한 물로 씻어본 적도 손에 꼽았습니다. 아무런 배움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같이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것도, 사람과 대화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런 저를 누구하나 신경 써주는 사람 없었고, 또 나 스스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25살이 된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음악을 가르치고 어두운 표정의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기보다는 밖을 돌아다니고, 음악적인 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삶에 꿈터가 없었더라면.. 하고 가끔 생각해봅니다.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꿈터를 만나지 못해서 뜨거운 국을 먹을 땐 천장을 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음악을 배우지 못하고, 사람과 만나 어울리는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아픔이 있다는 것도,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선 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꿈터는 제게 두 번째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나를 보살펴주시는 부모님 같은 선생님들, 형제자매처럼 장난치고, 혼나며 또 혼내고 울고 울었던 선배, 후배들.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아 때로는 학생으로, 때로는 형으로 아이들과 함께 교학상장 중입니다.

< 용준이 자서전 중 발췌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방안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는 은둔형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청소년

년들에게 기관까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치유, 회복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은 제한적이다. 앞서 민이의 사례처럼 은둔형 외톨이들은 집 밖의 외출을 꺼리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꾸준한 방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불안감을 덜하도록 천천히 도와야 한다. 은둔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회복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져 조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포괄적인 가정방문상담보다는 세분화, 전문화된 분야에 대한 상담 교육을 통해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정방문 상담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과 교육이 함께하는 시설 지원의 필요성 중요성

은둔형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질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한다. 은둔 생활이 장기화되면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이 되고 정서적 고립으로 인하여 소외감과 더불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대안관계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러한 벽을 허무는 데 공동체 생활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서적,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은 공동체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협력과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역할분담을 통해 청소, 요리, 설거지, 마당 텃밭 등 학교의 고장 난 부분이나 도배 등을 스스로 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차원 높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돌봄과 교육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협조적 사회성을 기르고 우리가 변해야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공동체 믿음을 배우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공동체 즐거움 느낄 수 있는 긍정적 경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험들이 진로교육이며 사회적응을 돕고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치유, 회복적인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여러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활과 협력을 배우고, 정서적 안정감과 어울려 함께 사는 삶을 배우는 경험이 필요하다. 생활과 교육을 통해 형클어진 일상을 바로 잡아주고 기본적인 생활습관, 사회적응과 회복을 돕는 기숙형 청소년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은둔생활 전부터 이미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몸에 배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효과성은 클 것이라 확신한다. 정서적인 단절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부재로 인하여 은둔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 안에서 소규모 기숙형 교육시설이 필요하다. 소규모 기숙형 교육시설이란? 효과적인 관리와 수용을 위한 규모가 큰 수용시설이 아닌 규모가 작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생활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그룹홈과는 다르며, 정서적,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교육이 함께 하는 새로운 공동체시설을 말한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종합시스템 구축 지원

청소년 관련 일들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은둔형 외톨이 관한 일은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그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사례의 민이와 용준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인연을 맺어 7년 동안 꿈터에서 지원했으며 졸업 후에도 사후관리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된다. 민간단체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유관기관, 청소년전문가와 정신보건센터, 병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해야 한다.

토론 5

당사자 시점에서 본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방식

유승규 당사자 청년 토론자



<당사자 시점에서 본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방식>

안녕하세요. 당사자 청년 유승규입니다. 저는 현재 28살이며, 20살부터 27살에 이르기까지 간헐적 은둔을 반복했는데요. 위 기간 중 약 3년 이상 외출이 일절 없이 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 외 기간도 편의점 정도만 왕래하거나 하는 수준이 더러 있었고 군 복무나, 대학교의 일부 학기 정도를 수행했습니다.

□ 은둔의 계기

제 경우에는 하고 싶은 꿈이 뉴미디어 계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역이었죠. 지금은 아이돌처럼 10대들이 선호하는 직종이지만. 제가 중학교 정도 되던 시절엔 뜬구름 잡는 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 모두 공부나 스펙에 더 관심이 많았죠. 저는 게임 속 커뮤니티,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더 많았고 상당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항상 “이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모임비를 지원해 줄 정도였고 당시 청소년이었지만 전국 단위 32명 멤버를 오프라인 모임에 초대하거나 운영하던 카페 회원도 스펙트럼이 한정된 인원임에도 1000명 단위에 육박했었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개인방송의 첫 방송 시청자도 최대 13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밤새도록 게임 하는 백수. 건강해 보이지 못하는 활동으로 여겨져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공부’를 위해 활동을 그만뒀고 기성세대뿐 아니라 주변 친구들조차 제가 하려고 하는 꿈을 지지해주지 못하자 중학교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가장 열심히 해왔던 활동을 스스로 쓸모없는 일로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걸어가던 외길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위 활동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들인데 그 이후로는 소심해지고 무기력한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너무 열정 있는 일이었는데 누구에게 털어놔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으니 말이죠. 당시 시대상 그 시선을 이겨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란 저에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어떤 고민이든 남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일절 털어놓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은둔 계기를 모두 설명하긴 어렵지만 위 이야기가 가장 큰 갈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사자로서 겪는 어려움은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로 축약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정신병 우울증 등과 관련된 편협한 시선이 가족 등 주변 인간관계에도 만연히 퍼져있어, 내 상태가 은둔이라고 한들 당사자인 나조차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인지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은 분위기, 프로세스 마련

스스로 은둔을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치부로 여기고, 스스로가 나약해서 게을러서 끈기가 없어서 등 나 자신을 폄하하기에 이릅니다. 주변 시선과 가족의 시선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당사자의 수는 전국에 약 32만명 이상, 당사자와 함께 고통받고 있을 주변인의 수를 합하면 약 100만 명을 웃도는 숫자가 될 것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가장 가까운 주변인 1명 가족 1명만 있다고 가정해도 100만 명에 가깝기 때문이죠. 만약 가족이 없는 당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많은 당사자도 있을 것이니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일만한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실제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 중 상당수가 같은 고민에 허덕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K2 공동생활 중 만난 당사자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괴리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제 머릿속 생각 옵션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저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은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이 문제는 개인과 가족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사자는 그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상당수의 주변인도 당사자의 시선이 아닌 사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은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테면,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털어놓는 것이 당연했다면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그러니까 27살 때, 도저히 어디에 털어놔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k2를 알게 된 것도 혼자 너무 답답해서 일본의 사례를 뒤적이다 논문에서 발견한 것이었어요. 많은 당사자들이 정신병원을 가거나 상담을 받아도 오히려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은둔에 특화된 시설과 프로세스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당사자의 시선에서 접근했으면 ..

제 은둔 시절 외부와 접촉할 수 있던 유일한 수단은 편의점, 배달원분들 또는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아무리 병원이 많고 상담 센터가 많아도 유효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센터와 병원까지 연계될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른테면 게임 업체와 협업해 게임상에서 쉽게 상담을 접할 수 있는 NPC를 만든다던가 배달업체, 편의점과 협력해 당사자 방문시, 배달원

이 방문 시 전단을 나눠주거나 공공연하게 포스터가 붙어 있다던가 캠페인을 하거나 말이죠. 어떠한 형태로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동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간다리가 있다면 기존 센터와의 연계도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당사자의 동선과 시선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부모와 주변인에게 마음을 닫았던 아주 근본적인 사실을 잊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부모나 주변인을 위한 의무교육 또는 상담

이미 몇 년간 은둔하고 있는 당사자 혼자 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 관계의 전부 일지도 모르는 가족과 주변인의 변화가 우선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에 소통이 단절되거나, 그대로 학습되거나 극단적 경우에는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폭력을 당했던 사례도 심심치 않은데요. 그래서 은둔 문제 역시 가정환경과 상당히 유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나 아이를 가질 때 정말 아주 필수적인 의무 상담이나 의무가 아니더라도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현 상태가 완화될 수 있는 하나의 방지책이 되지 않을까요?

부모나 주변인 또한 당사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당사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돕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다.” 등 거의 반 포기 상태로 K2에 내방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반드시 관련된 상담 프로세스나 의무적인 상담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부모 역할 훈련(PET)'이 아주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부모가 된 경우도 많겠지만 그냥 당사자처럼 인생을 처음 살다 보니 어느새 부모가 되어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속칭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은둔 당사자와 함께 진행하는 은둔 고수 프로그램, K2에서의 공동생활, 요코하마의 한일 청년 포럼에 모두 참석해 본 결과, 단지 어떤 계기로 마음의 문이 닫힌 것 뿐. 뛰어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학력이 좋거나 미용에 뛰어난 멤버, 그림에 능통한 멤버 등 각자 달란트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사회적 교류를 포기했다는 건 그야말로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은둔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떤 계기를 쫓 따라오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서 패널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하거나 뮤지컬을 하는 것에

부끄럼이 없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매우 능통합니다. 영상을 전공하여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같은 영상제작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은둔 당사자를 위한 은둔 고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바로 옆집에 저보다 훨씬 많은 재능을 사회에서 발휘할 수많은 은둔 당사자가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혼자서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단지 우연한 계기로 지원 단체를 접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같이 사는 공동생활을 하며 직접 밥도 해 먹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은 사회 경험을 했습니다. 연계된 곳에서 캐스트 50명 규모의 뮤지컬 공연도 경험할 수 있었고 요코하마에서 공연을 해 볼 일도 생겼습니다.

일자리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도 생겼고요. 같은 고민을 가진 한국, 일본, 호주 등 다양한 친구들과 소통하며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깊고 깊은 은둔의 수렁에서 “아.. 나 어쩌면 다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희망을 맛보게 되었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니 집 밖에는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당사자가 저보다는 더 쉽게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6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 비교와 청년거버넌스 협력방안

임성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비교와 청년거버넌스 협력방안

임성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

□ 핵심적인 차이점

-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닌 가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 은둔형 외톨이 특성상 해당 현상을 반복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예방적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고용에 집중하기보다 다각적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활력 향상을 추구

□ 비교표

광주광역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지원조례 지원연대 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가족 지원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추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개인적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계가 단절되어 가정 등 한정된 공간에서 고립된 상태로 지내며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으로 한정짓지 않고 대상자의 관계와, 진행중인 고립 상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용어) ① “당사자”란 제4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② “예방군”이란 은둔형외톨이가 될 위험이 커서 예방 활동이 필요한 사람이다. ③ “직접 관계자”란 “당사자”와 “예방군”의 가족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과거 좋지 못한 가정 환경, 상황 등으로 인하여 고립 상태와 탈출 상태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당사자와 문제

	④ “지원자”란 당사자와 예방군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 등이다. ⑤ “사회관계 활동”이란 학업, 직업훈련, 취창업 중이거나 이를 준비하는 활동, 가족 외의 사람들과 교류·친목 등의 유대 활동을 뜻한다.	해결이 되었어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여 당사자와 함께 ‘예방군’을 추가하였음. 또한 은둔 상태의 자녀를 둔 가족 또한 해당 문제로 인하여 각종 스트레스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관계 형성 또한 중요한 사항이기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함. 또한 사회관계 활동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겐 당연한 일이지만,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명시하여 지원해 나가야 함.
	제4조(당사자 기준) ① 은둔 상태 1.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2.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경우 3.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4. 혼자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5. 은둔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6. 방문 조사를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 기준에 부합 할 경우 ② 기간 위 ①항의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거나 그러한 적이 있던 사람	당사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 받을 사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함. 또한 은둔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찾아
	제5조(적용 범위) ① 당사자	

	② 예방군 ③ 직접 관계자 ④ 지원자 및 은둔형외톨이 유관 기관 ⑤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필요한 사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u>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u> 사회성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u>은둔형외톨이 및 그 가족의 고통 완화, 치유, 회복,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u>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삶’에 가족을 추가하고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여 명시하였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 조사 및 연구 3. <u>은둔형 외톨이의 예방·치유·회복·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u> 4.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은둔형 외톨이 종합 정보체계 구축 7. <u>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u>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은둔형외톨이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주광역시 조례안에선 고용과 직업훈련등의 지원이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고용과 직업훈련이 아닌 사회적 소통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있기에 치유, 회복,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또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 투입 시 위험을 경감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인구학적·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 3. 은둔 원인과 생활 실태의 특성 4. 당사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5. 당사자 및 가족의 지원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당사자 및 가족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원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견 7. 지역 내 지원 인프라와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활동 내용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구청장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현재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다양한 개개인적 문제들이 많고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나오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와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따라서 실태조사 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가야 함.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9조(은둔형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의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의 설치·지정·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 3. 광주광역시의원 4. 광주광역시 소속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1명 이상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당사자 및 가족의 이해 대변 단체, 분야별 기관의 관계자 3. 민간의 자립지원 전문기관 관계자 4. 서울특별시의원 5. 서울특별시 소속 관계 공무원 6. 당사자 또는 당사자 출신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현재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분들도 중요 하지만 해당 문제는 연구와 조사가 미비하고 개별로 상태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대변단체, 민간인 관계자들이 소속되어 함께 의논하고 진행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은둔형외톨이 지원기관) ① 시장은 은둔형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기관을 설치·운영 및 지정·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가. 은둔형 외톨이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나. 은둔형 외톨이의 체계적인 조사·통계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역량 강	인구 150여만명인 광주광역시와 달리 서울특별시는 약 977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이동이 적으며 활력이 없는 은둔형 외톨이 특성상, 하나의 중앙기관에서 지원하기보다 지역사회에 녹아내릴

2.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통계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의 치유를 위한 미술, 음악, 도시농업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화에 관한 사항 라. 기초지원센터, 민간의 자립지원기관, 유관 단체와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자체별로 지원센터(이하 “기초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가. 지원 대상자 발굴 나. 지원 대상자에게 종합 서비스 설계·연계·관리 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협력 체계 구축 라. 광역센터의 사업 보조 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서비스 제공에 전문성이 있는 다수의 민간 단체 등을 자립센터로 지정, 지원하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가. 지원 대상자 발굴 나. 지원 대상자에게 전문·특화 서비스 제공 다. 광역 및 기초센터의 사업 보조 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둔형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광역 및 기초 센터, 자립센터에서 당사자, 예방군, 가족을 지원하는 사람은 유관 교육을 충분히 받은 자여야 한다. 제14조(지원서비스) ① 시장은 은둔형외톨이 당사자, 예방군,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센터가 필요함.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활동지원
--	--	--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에게 제공할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함.
제12조(자립지원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1. 은둔형 외톨이 방문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은둔형 외톨이의 활동 지원 서비스 3. 은둔형 외톨이의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과 지역사회 종합 지원 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5. 은둔형 외톨이의 단체생활 및 독립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사업 6. 은둔형 외톨이 사후 관리 사업 7.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8.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예방군에게 제2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한다.	
제13조(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부모 등 직접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진단 및 코칭서비스, 상담서비스,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원 2. 인식·행동 개선 프로그램 및 부모들의 상담 서비스 4. 정보 제공과 교육 서비스 지원 5. 기타 필요한 서비스 지원 ⑤ 은둔형외톨이는 지원하는 시설·기관은 자립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4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의 자원 활동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유관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조사연구·발굴·연계·자원봉사·인식제고·국내외 교류·제도 개선과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관심이 있는 단체의 활동이 보다 강하다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체가 주민이라기 보다 단체 등으로 명시하여야 함.
제1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는 시장이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원서비스) ④항에 명시	
제1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은둔의 예방 대책) ① 시장은 은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8조의 실태조사와 제9조의 지원위원회 및 각 지원 현장에서 밝혀진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지원에 근거하여 학교 등 교육 현장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가정환경과 가족과 관련된 사항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학교나 직장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해결 되었지만 다시 은둔 상태에 돌입하거나 그런 상태에 빠질 위험자들의 예방을 위해선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년거버넌스 형성과 협력방안

저는 2017년부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방안 수립과 조례 발의를 목표로 활동해왔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들은 저 스스로부터가 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경험했던 당사자 출신이고, 그렇기에 해당 문제의 해결과 지원이 절실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겪었던 기간 내내 여타 다른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과 다르지 않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으로 생활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4년제 대학교 졸업을 준비하며 응시했던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낙방하며, 수동적인 성격은 보더 심화됐고, 이윽고 별도의 직업 없이 광의의 은둔 생활을 약 10개월간 지속했습니다.

방금 전 광의의 은둔 생활이라 표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지 학창시절과 대학시절 때 좋은 친구들을 만났었고, 그들과 관계를 지속 해오면서 외부 활동을 한달에 많게는 4~5번 정도 하여 이러한 상황을 벗어 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그 당시의 친구들과 같은 조력자가 없었다면,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지금도 이어 나갔을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 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존재하는 웹사이트인 더 호퍼, 디시인사이드의 은둔형 외톨이 갤러리 등을 확인 해 보면 사회 진출과 인간으로서 관계망 구축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탈출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가진 당사자들이 여럿 관찰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자면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청년위원회를 모집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이러한 상황을 벗어났던 은둔 상황을 경험했던 청년분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원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인간다운 삶을 원하며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최근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시작된 청년 거버넌스가 이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역을 넘어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다채롭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알리고 대표적인 청년세대의 문제로서 인식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보다 나아가 청년시기에 지원받지 못하여 장기화된 중년세대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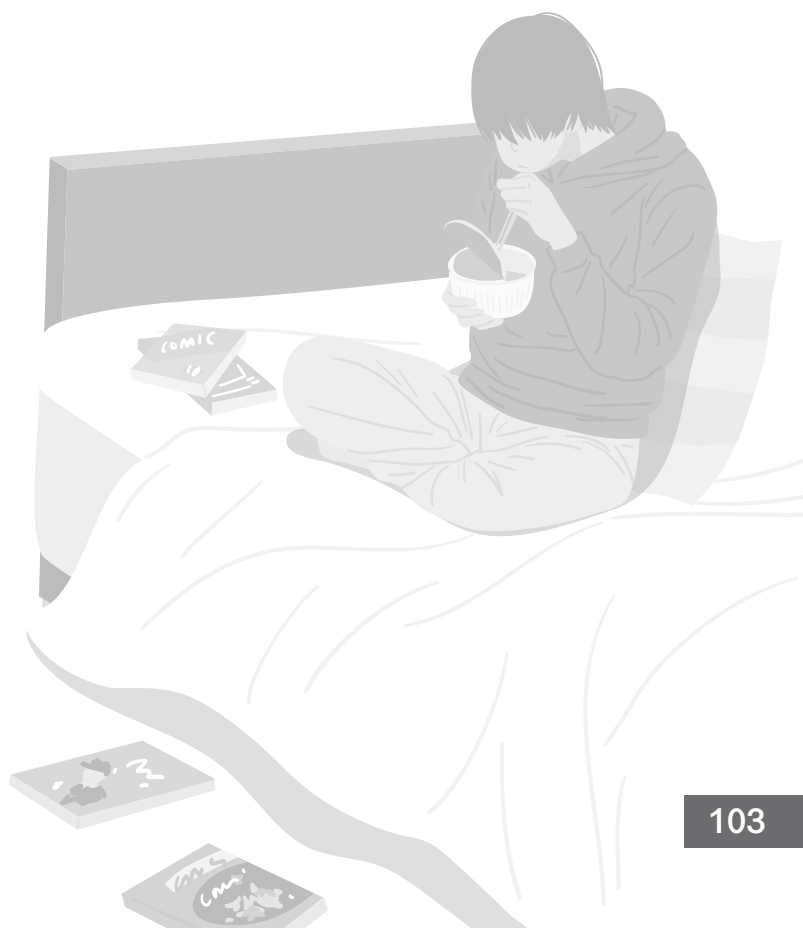
1. 당사자 청년 조직을 통한 활동가, 당사자에서 벗어난 청년들의 거버넌스 활동
2. 관심있는 유관단체와 상호 유기체적 협력
3. 시의원 등 입법기관과 지속적인 소통
4. 은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자녀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가족조직과 연계
5.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 및 사회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 등 연계

다양한 기관과 협력 등 민간 주도의 연계를 기본으로 하되, 정부·입법기관과의 민관 거버넌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1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자료 1-1.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시행 2020. 7. 1.] [광주광역시조례 제5282호, 2019. 10. 15., 제정]

광주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
3. 광주광역시의원
4. 광주광역시 소속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2.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통계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의 치유를 위한 미술, 음악, 도시농업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립지원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제13조(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의 자원 활동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는 시장이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2019. 10. 15.>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준비모임 조례안



자료 1-2. 서울특별시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준비모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외톨이 및 그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외톨이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외톨이”란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개인적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계가 단절되어 가정 등 한정된 공간에서 고립된 상태로 지내며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용어)

- ① “당사자”란 제4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 ② “예방군”이란 은둔형외톨이가 될 위험이 커서 예방 활동이 필요한 사람이다.
- ③ “직접 관계자”란 “당사자”와 “예방군”의 가족이다.
- ④ “지원자”란 당사자와 예방군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 등이다.
- ⑤ “사회관계 활동”이란 학업, 직업훈련, 취창업 중이거나 이를 준비하는 활동, 가족 외의 사람들과 교류·친목 등의 유대 활동을 뜻한다.

제4조(당사자 기준)

- ① 은둔 상태
 - 1.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 2.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경우
 - 3.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 4. 혼자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 5. 은둔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 ② 기간
 - 위 ①항의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거나 그러한 적이 있던 사람

제5조(적용 범위)

- ① 당사자
- ② 예방군
- ③ 직접 관계자
- ④ 지원자 및 은둔형외톨이 유관 기관
- ⑤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필요한 사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은둔형외톨이 발생 예방, 은둔형외톨이 및 그 가족의 고통 완화, 치유, 회복,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정기적인 실태 조사 및 연구
3. 예방·치유·회복·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 소통과 협업 체계 구축
5.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종합 정보체계 구축
7.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8.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은둔형외톨이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인구학적·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
3. 은둔 원인과 생활 실태의 특성
4. 당사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5. 당사자 및 가족의 지원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당사자 및 가족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원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견
7. 지역 내 지원 인프라와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사항
8.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활동 내용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구청장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은둔형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은둔형외톨이 지원기관의 설치·지정·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1명 이상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은둔형외톨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2. 은둔형외톨이 관련 당사자 및 가족의 이해 대변 단체, 분야별 기관의 관계자
3. 민간의 자립지원 전문기관 관계자
4. 광역의회 의원
5. 서울특별시 소속 관계 공무원
6. 당사자 또는 당사자 출신자
7. 그 밖에 은둔형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은둔형외톨이 지원기관) ① 시장은 은둔형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기관을 설치·운영 및 지정·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 가.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나. 체계적인 조사·통계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라. 기초지원센터, 민간의 자립지원기관, 유관 단체와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2. 기초지자체별로 지원센터(이하 “기초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 가. 지원 대상자 발굴
 - 나. 지원 대상자에게 종합 서비스 설계·연계·관리
 - 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협력 체계 구축
 - 라. 광역센터의 사업 보조
 - 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서비스 제공에 전문성이 있는 다수의 민간 단체 등을 자립센터로 지정, 지원하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 가. 지원 대상자 발굴
 - 나. 지원 대상자에게 전문·특화 서비스 제공
 - 다. 광역 및 기초센터의 사업 보조
 - 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둔형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④ 광역 및 기초 센터, 자립 센터에서 당사자, 예방군, 가족을 지원하는 사람은 유관 교육을 충분히 받은 자여야 한다.
- 제14조(지원서비스) ① 시장은 은둔형외톨이 당사자, 예방군,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에게 제공할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1. 방 및 집에서 나오는 지원 : 온라인 서비스, 진단 및 코칭서비스, 상담서비스, 가정방문 서비스,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원
 - 2. 개인활동 및 유대활동 지원
 - 3. 자립역량 지원활동 : 개인재무 역량, 관계역량, 주거생활역량, 직업진로 역량 프로그램 등
 - 4. 자립지원 활동 : 일을 통한 자립 준비, 학업 지원 등
 - 5. 주거 지원 : 독립 주거, 공유 주거, 공동체 주거 지원 등
 - 6. 자립 안정화 지원 : 학교 생활 및 직장 생활 적응 지원 등
 - 7. 지원을 받으며 일을 익힐 수 있는 중간적 일자리 등
 - 8. 기타 필요한 서비스 지원
 - ③ 예방군에게 제2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한다.
 - ④ 부모 등 직접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진단 및 코칭서비스, 상담서비스,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원
 - 2. 인식·행동 개선 프로그램 및 부모들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 3. 당사자의 개인 치유 활동, 유관 단체 활동 참여에 필요한 실비 지원
 - 4. 정보 제공과 교육 서비스 지원

5. 기타 필요한 서비스 지원

⑤ 은둔형외톨이는 지원하는 시설·기관은 자립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5조(유관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은둔형외톨이의
조사연구·발굴·연계·자원봉사·인식제고·국내외 교류·제도 개선과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은둔의 예방 대책) ① 시장은 은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8조의 실태조사와
제9조의 지원위원회 및 각 지원 현장에서 밝혀진 은둔형외톨이에 관한 지원에 근거하여 학교
등 교육 현장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MEMO

